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KGU 경기대학교
1947

1947 KGU 경기대학교

내일을 품다,
경기대학교

나는 1947년 대한민국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배웠고
사소한 책임도 게을리하지 않는 담대한 성품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를 생각하는 인품으로
세상의 내일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열린 대학 『OPEN 2036』

Open to Students, Open to Communities, Open to Future

건학이념

眞 Advanced + 誠 Lead + 愛 Love

비 전 — 학생 성공을 실현하고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대학 『OPEN 2036』

발전목표 — 미래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지역 **허브대학**으로의 도약

인재상 — 미래 글로벌 공동체를 선도할 ALL BARUN 참 인재

핵심역량

B 창의융합 Boundless	A 자기계발 Able	R 시민의식 Reliable	U 소통 Understanding	N 협업 Networking
• 문제해결 • 창의적 사고	• 지식탐구 • 자기주도	• 책임의식 • 사회배려	• 의사소통 • 세계화	• 리더십 • 팀워크

발전방향

"학생이 선택하는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수요 중심 대학혁신** Open to Students

+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 허브대학** Open to Communities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Opportunity	Partnership	Eco-system	Needs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학생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산업 **수요맞춤** 평생교육 실현

발전전략

대폭적 규제 완화를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학생 경쟁력 강화**	대학 행·재정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성공지원 확대**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 실현**	대학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주민 생애-이음형 **평생 직업교육 혁신**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 경계 없는 학사 운영 확대	3. 미래 성장산업 전문인재 양성	5. 학생성공 파트너십강화	7. 지·산·학 상생체계 구축	9. ESG 경영체계 구축	11. 생애-이음형 커리어교육
1-1. 학생 전공선택 기회 유연화 1-2. 전공 탐색 및 설계 지원 강화 1-3. 미래형 학사제도 유연화	3-1. 미래 경쟁력 기반 학사구조 조정 3-2.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및 첨단학과 육성 3-3. 지역산업 연계 대학원 특성화(신설 및 육성)[R] 3-4. 보건등 미래산업 인재육성[R]	5-1. 학생주도 단계별 학습 지원 5-2. 맞춤형 통합 상담체계 강화 5-3. 단계별 취·창업 지원 강화	7-1. 지역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공헌 및 편안 문제해결)[R] 7-2.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R] 7-3. 초광역 산학연 연계 협력[R]	9-1.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 ESG 체계 구축 9-2. ESG 경영평가 및 공시 체계 마련	11-1. 지역산업 수요맞춤 경기 커리어패스 운영[R] 11-2. 고교-대학-산업 연계[R] 산학일체 교육 운영
2. 미래 선도 교육 활성화	**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6. 대학 행·재정 역량 강화**	**8. 지·산·학 협력교육 확대**	**10. 지역 개방형 협력 확대**	**12. 지역주민 미래소양 교육**
2-1. 미래 수요 중심 교육 활성화 2-2. 소단위 전공 교육 활성화 2-3. 미래 융복합 교육 활성화	4-1. 미래 교원 역량 강화 4-2. 대학 교육 품질 강화 4-3. 미래 교육 환경 개선	6-1. 대학 행정 역량 표준화 6-2. 대학 수입 자원 다각화 6-3. 교육비용 구조 개선 6-4. 캠퍼스 인프라 고도화	8-1.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확산[R] 8-2. 지산학 협력 교육과정 개발[R] 8-3. 지산학 공동 교육과정 확대 (계약학과)[R]	10-1. 지역 개방형 캠퍼스 타운 구축[R] 10-2. 외국인 학생 지역 정주, 취업 지원[R] 10-3.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구축[R]	12-1. 평생학습 브랜드 수립 및 운영체계 개편[R] 12-2. 미래 트렌드, 수요 기반 평생교육체계 신설[R]

※ [R] RISE사업과 연계된 『OPEN 2036_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2027 학년도

경기대학교 수시모집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선도할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는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이 인재양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민족자립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眞·誠·愛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1947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양보육사범학교를 모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1979년 수원캠퍼스가 조성되었고, 1984년 10월에는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은 진리를 탐구하며,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자신과 민족, 나아가 인류를 사랑하는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眞·誠·愛의 이념을 실천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민족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인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로 구성되며, 경기도 수원시의 광교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수원캠퍼스는 대학본부와 7개 단과대학 및 20개 학부(자유전공학부 포함) 17개 학과 37개 전공이,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에 위치한 서울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 2개 학부(자유전공학부 포함) 6개 학과 2개 전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은 61개 전공의 석사과정과 63개 전공의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일반대학원과 3개의 전문대학원 및 6개의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7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은 2,926명으로 재학생은 13,000여명과 대학원 2,000여명 등 총 15,000여명이며 재직 중인 전임교수는 480명으로 이는 전국 사립대학 최상위권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활발한 연구활동 및 우수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문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1 Chapter

1.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06

2. 경기대학교 논술 준비 가이드
   1) 논술 출제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12
   2) 논술 채점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18
   3) 논술 검토위원(고교교사)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26

3.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합격생 인터뷰
   1) 언어·사회 논술 합격생 인터뷰 40
   2) 수리논술 합격생 인터뷰 43

4. 논술우수자전형 참고사항 46

5. 논술우수자전형 FAQ 48

6.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결과분석 50

7. 전공자율선택제 안내 51

02 Chapter

1. 2026학년도 모의논술 기출문제 문항 및 해설 영상 안내
   1) 모의논술 문항(언어·사회) 58
   2) 모의논술 문항(수리) 62
   3) 해설영상 안내 63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1)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문항, 해설, 예시답안(언어·사회) 64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문항, 해설, 예시답안(수리) 80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Chapter 01

1.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2. 경기대학교 논술 준비 가이드

1) 논술 출제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2) 논술 채점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3) 논술 검토위원(고교교사)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3.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합격생 인터뷰

1) 언어·사회 논술 합격생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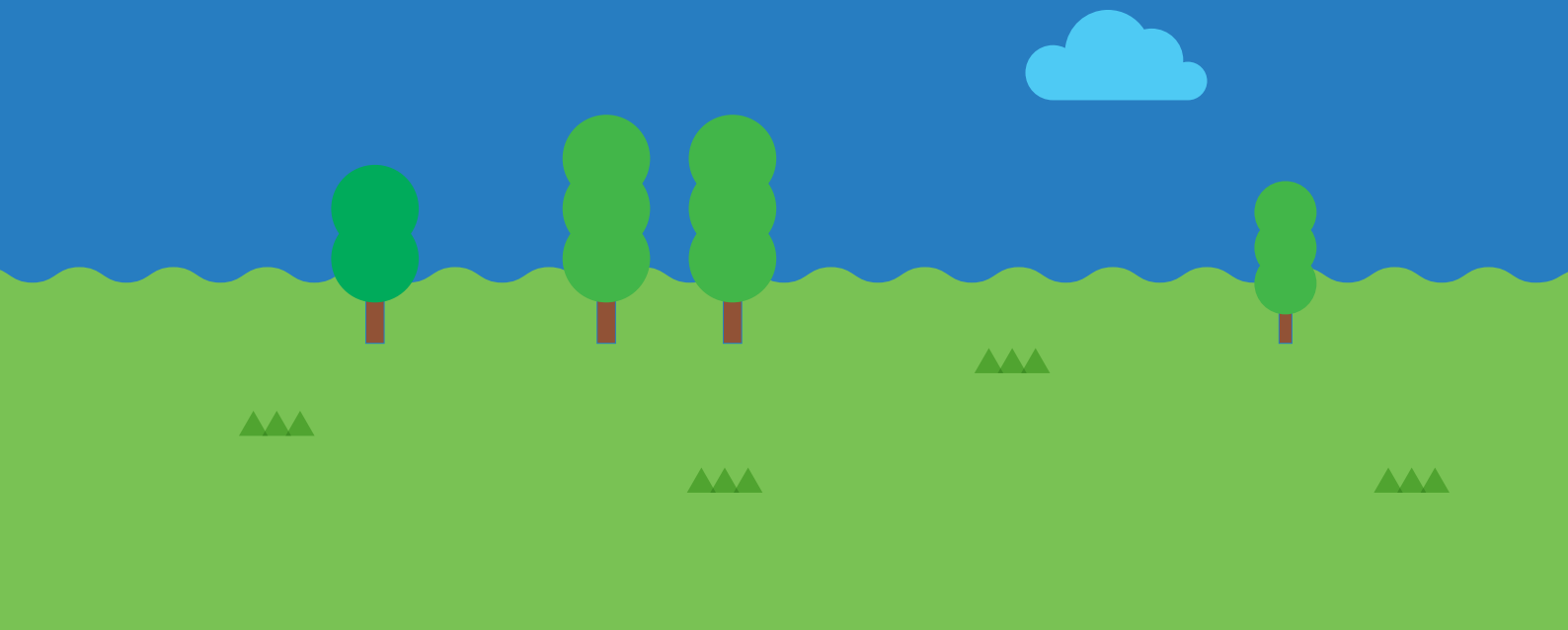
2) 수리논술 합격생 인터뷰

4. 논술우수자전형 참고사항

5. 논술우수자전형 FAQ

6.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결과분석

7. 전공자율선택제 안내



1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39명 선발

캠퍼스	모집단위(학부/학과)	논술유형	인원
수원	자유전공학부(수원)	언어·사회 논술	93
		수리 논술	92
서울	자유전공학부(서울)	언어·사회 논술	41
		수리 논술	13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방법

구분	논술	학교생활기록부(교과)	합계
반영비율(점수)	90%(90점)	10%(10점)	100%(100점)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라.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❶ 반영교과 및 교과별 반영 비율

석차등급 점수화 반영 비율 : 공통·일반선택과목 90% + 진로선택 10%

○ 석차등급 반영 가능한 경우

표1 석차 등급 반영 사항

전형유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자유전공학부(수원, 서울)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사회, 과학

가)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및 반영비율 없음
나) 이수단위 적용
다) 과목별 등급이나 석차가 없이 "이수", “PASS”, “ * ”, "우수", "보통", "미흡"으로만 표기된 과목은 제외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과목구분코드 항목이 03(체육·예술)으로 표기되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마) 이수단위 표기 없이 등급이 표기된 경우와 검정고시의 경우 과목의 이수단위는 “1”로 적용

석차등급 반영 불가능한 경우

가)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응시한 전 과목 성적을 다음[표2]과 같이 점수로 환산하고 이수단위를 "1"로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동일하게 산출함[표3]

나) 평어, 원점수 등 환산점수: 반영 교과 성적을 다음[표2]과 같이 점수로 환산하고 이수단위가 없는 경우 이수단위를 "1"로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동일하게 산출함[표3]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가) 진로 선택 과목 수 제한 없음[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구분코드 항목이 02(진로선택)인 과목만 반영]

나)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의 환산점수는 [표2] 참조

다) 진로 선택 과목이 없는 경우 본인이 취득한 공통·일반선택 과목 환산 평균점수를 반영함

2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과목별 석차등급을 본교가 정한 기준[표2]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식[표3]을 이용하여 평균점수 산출하여 반영함

표2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 환산등급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검정고시 점수				100	96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	성취평가 점수 (전문교과포함)			A	B		C		D	E
	평어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원점수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진로 선택 과목		A	B		C					
환산점수	수시 모든 전형 (체육특기자 제외)	100	99	97	95	90	85	60	20	0

표3 평균점수 산출방식

평균점수 =	Σ (과목별 환산점수 * 이수단위)
	Σ (과목별 이수단위)

3 비교내신대상자

1) 대상: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성적 산출을 할 수 없는 경우

2) 반영방법: 본교에서 반영하는 논술고사 성적에 따른 석차* 누적비율**을 적용해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학생부 평균등급은 환산등급에 따라 점수화[표4]하여 반영함

* 해당 석차는 논술고사 성적에 따라 비교내신대상자를 위해 별도 산정된 석차를 의미함

** 누적비율에 대한 계산방법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사정지침에 따름

표4 논술(논술우수자전형) 비교평가대상자 교과 성적 환산표

석차누적비율	11%이하	11%초과~40%이하	40%초과~77%이하	77%초과~96%이하	96%초과~100%이하
환산등급	2	4	6	8	9

마. 논술고사 출제 분야 및 범위

유형	출제 분야 및 범위	출제문항	답안 길이		시험시간
언어·사회 논술	언어, 인문, 사회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시문 (범위: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일반과목)	언어, 사회 각 1문항	언어	450±50자	100분
			사회	700±50자	
수리 논술	수리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시문 (출제 교과 범위: 수학, 수학Ⅰ, 수학Ⅱ)	2문항 (각 문항별 소문항 있을 수 있음)	제한 없음 (답안 규격이 정해진 자유 양식)		

출제 방향		
	공통	•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개념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 • 수험생의 학업성취도 즉, 각 교과의 지식을 더 깊고 더 넓게 배웠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 • 기타 자세한 고사 안내사항, 답안 작성 유의사항 등은 논술고사일 전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언어·사회	• 동서양 고문, 교과서 외의 명저, 학술논문 등의 지문은 인용하지 않음 •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제시문은 배제하며, 제시문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논제나 가벼운 말잔치에 그칠 수 있는 논제는 지양 • 주어진 통계자료를 해석, 응용 평가하여 논제를 해결하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음
	수리	• 고교 수학 교과의 기본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추론,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 • 고교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게 적합하고 대입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

바. 선발원칙

선발 원칙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과 논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논술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예비 합격 후보자 제외) • 예비 합격 후보자는 불합격자 중 전형총점 순으로 발표 •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미달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 및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예비합격자 후보 중 충원할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 해당 모집단위로 이월	
동점자 처리 기준	1. 논술고사 성적	
	언어·사회 논술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공통·일반교과 (① 평균점수 ② 영어교과 평균점수 ③ 국어교과 평균점수 ④ 수학교과 평균점수) ㉡ 진로선택 평균점수 ㉢ 이수 단위(반영 교과)합
	수리 논술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공통·일반교과 (① 평균점수 ② 영어교과 평균점수 ③ 수학교과 평균점수 ④ 국어교과 평균점수) ㉡ 진로선택 평균점수 ㉢ 이수 단위(반영 교과)합

※ 기타 사항은 본교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

사.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평가반영방법

- 국내고등학교 입학 후 외국고등학교로 편입한 학생은 국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 중 국내고등학교 입학한 사실이 있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사안에 대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 추가 확인 필요시 수험생 또는 수험생이 소속되었던 고교(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발행한 경우 상위 조치사항을 적용
-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국내고등학교 재학 사실(고교명, 재학기간)을 수집하며 해당 내용을 기입한 경우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에서 국내고등학교 재학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필수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반 학교생활기록부Ⅱ 발급)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서류미제출 결격 사유에 해당함

참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발급 관련 개선사항 안내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신설
- 2012학년도 이후 고등학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재학 고등학교명이 표기됨

모집시기	구분	전형유형	평가반영방법		
			구분	조치사항	평가반영방법
수시	정량평가 + 기타	논술우수자전형	제1호	서면사과	전형총점 0.1점 감점
			제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전형총점 0.2점 감점
			제3호	학교봉사	전형총점 0.3점 감점
			제4호	사회봉사	전형총점 5점 감점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전형총점 10점 감점
			제6호	출석정지	전형총점 20점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전형총점 30점 감점
			제8호	전학	부적격
			제9호	퇴학처분	

아. 선발원칙

1) 공통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6. 9. 7.(월)~11.(금) 17:00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원본서류제출	2026. 9. 15.(화) 17:00까지	방문 및 우편 제출

2) 논술(논술우수자전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논술	논술고사장 조회	2026. 11. 20.(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논술고사일	2026. 11. 27.(금)	수원캠퍼스에서 실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참고



2

경기대학교
논술 준비 가이드

논술 출제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1) 논술 출제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언어·사회 논술

❶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 출제 방향성

수험생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언어·사회 논술은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1문항씩을 출제합니다. 언어 영역의 문항은 450자를 기준으로 ±50자까지, 사회 영역의 문항에 대해서는 700자를 기준으로 ±50자까지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영역은 2개 정도의 제시문으로, 사회 영역은 3~4개 정도의 제시문으로 문항을 구성합니다. 실제로 2026학년도 논술고사에서도 언어 영역은 2개의 제시문이, 사회 영역은 4개의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 모두 문항의 질문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실히 작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안작성 길이의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언어·사회 논술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과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제시문은 현행 교과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서 골라내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의 질문 구성도 수험생께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 이상의 고도의 해석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닌 합당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취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언어·사회 논술의 기본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우리 경기대학교의 교육체계와 역량을 통해 충분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CREATE VISION)',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CREATE VALUE)' '미래 사회를 선도(CREATE FUTURE)하는' 3C형 인재로 길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실하게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서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고사를 통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❷ 언어·사회 논술 작성 시 유의사항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지만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언어·사회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사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고도의 분석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한 만큼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질문에 담기지 않은 무언가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항의 질문 안에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사회 논술 B형의 [문항1]은 "(가)의 ㉠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회기와 (나)의 ㉡에서 나타난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먼저 제시문 (가)의 ㉠, 즉 '기계'라는 표현에 주목

하여 그것이 (가) 제시문의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한 화자이자 의사인 '회기'가 다른 화자이자 환자인 '인옥'을 대하는 태도와 제시문 (나)에서 "그래도 안 돼"라고 말하는 '인부'의 루핑 집 단칸 벽 안에 살고 있는 한 가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러한 질문의 구성은 제시문 (가)에서 지니는 '기계'의 의미가 문맥을 통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시문 (가)의 '회기'의 태도와 제시문 (나)의 '인부'의 태도가 서로 명확히 대비되어 비교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비교'가 수험생께서 교과과정의 이수를 통해 이미 직접적으로 학습하셨거나,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험생께서는 문항을 통해 제시된 질문의 각 요소를 분석하여 충실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의 모든 문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항에서 제시한 질문은 그 자체로 논술고사 답안의 구성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문항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세부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제시된 세부 질문은 답안의 도입부가 되고, 다음으로 제시된 세부 질문은 답안의 마무리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 역시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의 모든 문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출제의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❸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 준비 전략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존중하여 이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만족스러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논술고사 출제에 참여한 출제위원은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가 매우 좋은 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쌓은 많은 분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의 고등학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의 설명이나 해설 역시 고등학교 교과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 준비의 첫 번째 전략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충실한 것이라고 다시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간 경기대학교 언어·사회 논술을 통해 출제된 문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언어·사회 논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경기대학교의 언어·사회 논술은 기본적인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출제된 논술고사 문항은 앞으로 나오게 될 논술고사 문항이 어떤 것이 될지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그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여 이미 출제된 논술고사 문항과 관련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택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은 역시 우리 경기대학교에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모의논술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의논술고사를 위해 우리 경기대학교에서 준비하는 문항은 실제의 논술고사와 똑같은 정도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다변하는 교육과정이나 논술고사 출제 지침의 미세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대학과 출제진은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논술고사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올해의 논술고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출제가 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의논술고사를 통하여 경기대학교의 2027학년도 언어·사회 논술을 미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수리 논술

1 수리 논술 출제 방향성

수리 논술은 단순한 계산 숙련도나 공식 암기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며, 단계마다 필요한 개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풀이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수학, 수학 I, 수학 II』 등을 기반으로 하며, 기본 개념을 실전 상황에 응용하는 유형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단순히 공식을 대입하여 답을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개념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기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수리 논술의 성패는 『풀이 과정의 논리적 설명』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 도출은 물론, 주어진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에서 선택한 개념의 타당성과 접근 방식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수학적 이해도와 논리적 전개 능력, 그리고 명확한 문장 또는 수식의 기술 능력과 정확한 계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출제 방향을 요약해 보면, 수리 논술은 수학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 논리적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명확한 서술 및 계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됩니다.

2 수리 논술 작성 시 유의 사항

수리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답 자체보다는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서술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수식만을 나열하거나 결론만 제시하는 방식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수학적 개념과 그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문장 또는 수식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문제에 제시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어떤 원리나 정리를 활용하여 접근할 것인지 명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학적인 기호와 표현을 사용할 때는 모호함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서술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문장 간의 연결에 신경써야 합니다. 풀이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검토 과정을 거쳐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도출한 정답 또는 결론이 문제의 요구 사항과 논리적으로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결이 어려운 문항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부터 확실하게 작성하여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완벽한 정답 또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문항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사고한 논리적 근거와 풀이 방향을 성실히 기술한다면 부분점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논리적인 서술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합격의 관건이 됩니다.

❸ 수리 논술 준비 전략

수리 논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수리 논술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원과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논리 전개 방식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마쳤다면,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듯 논리적인 서술 연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정답 또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 공식이나 정리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문장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수식 사이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적절히 배치하여 채점자가 풀이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실제 시험시간에 맞추어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관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문항을 해결해야 하므로, 풀이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에서도 핵심 논리를 잃지 않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지나치게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문항별로 시간을 배분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도 실전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작성한 답안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풀이를 끝낸 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자신의 답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출 문제분석, 서술 연습, 적절한 시간 관리, 답안 검토라는 네 가지 단계를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연습한다면 논리적 사고력과 실전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기대학교 논술 준비 가이드

논술 채점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2) 논술 채점위원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언어·사회 논술

언어

❶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점요인 및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논술 채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문제의 의도와 요구조건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입니다.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되며, 질문 속에 문제의 의도와 요구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이 요구하는 과제를 빠뜨리거나 조건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한 답안은 곧 문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며, 매우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언어·사회논술 A형 [문항 1]은 '제시문 (가)의 주인공이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의 주인공이 고독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수험생은 먼저 제시문 (가)를 분석해 주인공이 고독을 느끼는 구체적 이유를 파악하고, 그 고독의 근원이 근대 사회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시문 (가)와 (나)에 형상화된 외로움에 대한 태도를 비교·대조하여, 두 인물의 고독이 근대인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까지 서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논술 채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감점 요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요구한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비교·대조를 요구하는 문항에서 특정 제시문에만 치우쳐 서술하거나, 두 제시문을 각각 따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상호 간의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는 요구조건을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큰 폭의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시문의 핵심 논지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요약에 그치거나,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 베끼기식 서술 역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은 제시문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해석이나 관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답안은 본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답안 작성 시 문제의 요구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제시문에서 도출한 핵심 개념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되, 단순 요약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요구된 사고 과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글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킬 때 비로소 논술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답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점위원이 말하는 '우수답안'의 공통점

우수답안의 공통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제 충실성이 높다.	질문이 요구하는 과제, 예를 들어 설명, 비교, 대조, 평가, 분석 등의 조건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따르고, 한쪽 요구만 충족하거나 핵심 조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이나 논지의 축이 분명하다.	특히 비교·대조형 문제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는지가 선명합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글 전체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읽는 사람이 답안의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지 않고 재구성한다.	우수답안은 제시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의미를 확장하거나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즉, 제시문을 "읽은 흔적"이 아니라 "사고한 흔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구조가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다.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이 분명하고, 문단 간 연결도 자연스럽습니다.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분명하여 읽는 사람이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뒤집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의 의도를 깊이 있게 반영한다.	우수답안은 겉으로 드러난 문장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해석과 통찰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내용 나열보다, 왜 이런 비교를 시켰는지,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려는 문제인지까지 생각한 답안이 돋보입니다.
표현이 정확하고 명료하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호응, 개념어 사용이 안정적입니다. 문장이 길더라도 의미가 분명해야 채점자가 읽었을 때 혼란이 적습니다. 내용이 좋아도 표현이 지나치게 흐리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답안은 내용과 표현이 함께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적고 핵심이 살아 있다.	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론이나 장황한 설명보다, 논제와 관련된 핵심 주장과 근거가 중심이 됩니다. 즉, "많이 쓴 글"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정확히 쓴 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수답안은 논제 이해 → 핵심 기준 설정 → 제시문 재구성 → 논리적 전개 → 명료한 표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자는 '얼마나 많이 썼는가'보다 '문제가 요구한 사고를 얼마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수행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회

❶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점요인 및 답안 작성 시 지켜야 할 규칙

제시문의 의도와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제시문 간 관계(대립, 보완, 확장 등)를 오해하면 전체 답안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비교하라', '평가하라', '비판하라' 등 질문의 유형에 맞게 서술해야 하며, 요구된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내용이 좋더라도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반드시 논리성과 근거를 갖춰야 한다.	단편적 주장이나 개인적 신념의 나열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비례대표 폐지"나 "무조건적 통일"과 같은 주장도 근거와 맥락 없이 제시되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개념과 용어에 대한 과도한 반복 서술과 불명확한 활용의 지양	제시문에서 나온 개념과 정의를 반복적으로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적는 서술을 피하고, 제시된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문단 간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합니다.	각 문단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며, 특히 문단 간 연결 문장이 부족하면 글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량과 시간 배분의 균형 유지	지나치게 짧거나 길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정 문항이나 단락에 과도하게 서술이 집중되어 전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② 채점위원이 말하는 '우수답안'의 공통점

문제의 요구와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답안	우수답안은 제시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선택해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주장-근거-결론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각 문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앞뒤 문장이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를 보여주어 읽는 사람이 '따라가기 쉬운 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시문 간 관계를 적절히 구조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제시문을 비교 및 대조하거나 통합하여 하나의 논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의 차이를 드러낸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는 식의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활용	우수답안은 개념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이 활용되도록 사용함으로써 채점자가 답안의 완성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도한 주장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에 집중함	강한 표현이나 극단적 결론보다는, 제한된 정보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면 채점위원은 필자의 균형감이 높은 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리논술

수리 1

❶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점요인 및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가장 많은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한 답만 쓰고 그 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맞힌 경우는 대부분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수리논술은 정답 여부만 확인하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답이 나오는 과정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식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채점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수학적 기호와 글로 적절히 표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조건을 풀이에 끝까지 반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의역, 수의 범위, 조건 간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풀이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풀이 방향이 잘못되어 결정적인 오류로 이어져 큰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항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한 뒤 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풀이 과정을 작성한 후에도 빠뜨린 조건은 없는지, 결론이 문제의 요구와 정확하게 대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수학적 표현이 잘못되거나 계산 실수로 인해 감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하고 풀이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더라도, 마지막에 앞선 논리와 모순되는 결론을 쓰거나 계산이 잘못된다면 결국 틀리게 됩니다. 최종 답안을 작성한 뒤에도 반드시 검산하고 부호나 범위 등을 여러 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글자 및 숫자를 흘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 써야 합니다. 채점자는 학생의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답안지에 적힌 내용만을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에 기재된 문제 번호에 맞는 답란에 풀이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른 답란에 작성하여 0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만큼이나 답안 작성의 형식과 절차 또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정해진 답란에 해당 문항의 답안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❷ 채점위원이 말하는 '우수답안'의 공통점

우수한 답안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해야 할 것에 관해 기술하며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전체 과정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한 답안입니다. 수리논술의 답안은 주어진 문항과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파악한 조건들과 함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수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과 서술을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답안은 주어진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리논술의 문항은 주어진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출제자가 제시한 자료와 조건을 충실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답안은 전체적인 풀이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군더더기 없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요구와 풀이 전략이 언급되고, 단계별 계산 및 논증,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답안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구한 것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제시문을 통해 파악한 모든 정보를 다 기재한다고 하여 우수한 답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이나 의미 없는 계산의 반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답안 작성을 위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답안 작성 후 스스로 답안을 다시 읽어보며 채점자의 관점에서 이 풀이가 이해되는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수리 2

❶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점요인 및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답안 작성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직관에 의지해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B형 2번의 (2) 문항의 경우 9개의 점 중 정확히 4개의 점이 직선 위에 있고 그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점이 직선 위에 있으면 모순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네 점의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5개 이상의 점의 좌표를 구하였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네 점의 좌표만 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논술 시험에서는 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답이 나오게 된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자도 답은 맞으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답이라 하더라도 풀이 과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A형 2번 (1) 문항에서 요구하는 삼차함수 $f(x)$는

$$f(x)=\frac{1}{27}x^3-x+1$$

이지만 풀이 방법에 따라

$$f(x)=\frac{1}{27}x(x-3\sqrt{3})(x+3\sqrt{3})+1$$

등의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전개하면 같은 식이 됩니다). 식을 전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 시험은 답을 얻어내는 객관식 시험이 아닌, 수학적 개념을 얼마나 잘 서술할 수 있는가 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게 된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 과정의 실수도 감점의 요인이 되며 특히 초반 전개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나오면 전체 풀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❷ 채점위원이 말하는 '우수답안'의 공통점

우수답안의 경우 논리 전개가 명확하고 필요한 풀이를 논리 순서에 맞게 명확히 풀어내었습니다. 세로로 구분된 선을 기준으로 (1)을 왼쪽, (2)를 오른쪽에 푸는 방식으로 풀이 과정을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한 것도 장점입니다. 풀이의 길이 때문에 한 쪽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두세 줄 정도를 띄워 풀이 과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학 기호 및 서술 등에서도 애매하지 않게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각 과정이 잘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로 틀린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감점 요인이 되었는데, 우수답안의 경우 검산이 용이하도록 계산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게 작성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식 전개 과정에서의 줄 바꿈, 용어의 정리 등)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의 교점 등에 좌표 표시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피했고, 이를 활용하여 풀이 과정의 검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림은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는데 그림에 의존하여 풀이를 작성하는 경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경기대학교 논술 준비 가이드

논술 검토위원(고교교사)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3) 논술 검토위원(고교교사)이 말하는 경기대학교 논술 이야기

언어·사회 논술

언어

❶ 경기대학교 논술의 특징

경기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교과 영역 내에서 융합적 사고를 펼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언어·사회 논술은 관련 교과 영역의 복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은 하나의 문항에 2~3개의 제시문(2026학년도는 두 유형 모두 2개의 제시문으로 구성)이 주어지고, 제시문 간 관계를 파악하여 설명하거나 비교·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450±50자의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합니다.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며 독해력과 표현력을 키워 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이며,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전형 반영 비율은 논술 90%(90점) + 학생부(교과) 10%(10점)로, 학생부 교과 등급(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환산점수) 간 점수 차이(1등급 100점, 4등급 95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논술 성적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는 동일한 원칙과 난이도 하에서 서로 다른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두 가지 문항 유형(A형·B형)이 출제되었으며, 각 수험생은 이 중 한 유형에 응시합니다. 이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 방식으로, 두 유형 모두 동일한 구성 원리(제시문 독해 → 핵심 개념 파악 → 비교·대비·비판적 서술)를 따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 응시하더라도 유불리 없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입학처를 통해 공개된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항 전반을 고루 분석·훈련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사회논술 출제 영역(변동 가능)

출제 영역	언어 · 사회	
문항	A-1, B-1	A-2, B-2
문항 수	2문항(언어 ·사회 각 1문항)	
제시문 수	2~3개(언어)	3~4개(사회)
출제 범위	국어, 문학, 독서	통합사회, 한국사 등
글자 수	언어 450±50자	사회 700±50자
시험 시간	100분(교시별)	

※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❷ 고교 교육과정 준수 관련 내용

경기대학교 논술고사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를 충실히 준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한다" 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국어, 문학, 독서 등)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주제·가치·관점 등) 역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구성되므로, 교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언어 A형

문제 (언어A-1)	가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의 구보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출처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문학』(신사고)
관련 교육과정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2026학년도 언어 A형의 경우 제시문 가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나는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로, 두 작품 모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현대인(근대인)의 본질적 정서인 '고독(소외)'과 '외로움'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같은 정서를 대하는 서로 다른 인물·화자의 태도를 대비하도록 요구한 문항으로, 발문에서 핵심어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어 제시문 독해의 방향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어 B형

문제 (언어B-1)	가의 ㉠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회기와 나의 ㉡에서 나타난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문학』(지학사)
관련 교육과정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언어 B형은 제시문 가 차범석의 희곡 「성난 기계」, 나 이시영의 시 「공사장 끝에」가 제시되었습니다. 작품 속 상징어 '기계'의 의미를 분석하고, 같은 '고용된 노동자'라는 공통된 처지 속에서 타인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인물(가의 회기 / 나의 인부)을 비교하도록 한 문항으로, 경기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인류를 사랑하는 참다운 삶(愛)'과도 맞닿아 있어 수험생이 문항을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삶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문항입니다.

이처럼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의 두 문항은 모두 일반 선택 과목 『문학』과 공통 과목 『국어』에서 발췌한 작품을 활용하였고, 각 제시문에 대응하는 성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작품은 수험생에게 다소 낯설 수는 있으나, 주제(고독과 외로움, 인간애와 유대, 공감 등)는 국어·문학 교과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 온 내용이며, 일상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서술되어 있어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의 주제나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3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분석 및 준비 전략

최근 3년간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매해 유사한 출제 방식과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안 분량은 2024학년도까지 700±50자였으나 2025학년도부터 450±50자로 축소되어, 보다 압축적이고 밀도 있는 글쓰기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어(가치, 관점, 태도 등)를 제시문 가에서 이끌어내어 다른 제시문의 상황이나 인물에 적용·비교·비판하도록 하는 '비교 설명형' 또는 '비교 비판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동일한 구조가 유지되었으며, 2027학년도에도 기본적인 출제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입연도	문항	유형	논제
2024	언어 A-1	비교·비판	가에 나타나는 '이인국'의 삶의 방식을 나의 ㉠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다의 시적 화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를 가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024	언어 B-1	비교·평가	가의 ㉠과 나의 ㉡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나의 ㉢을 참고하여 다의 '권 씨'의 행동을 평가하시오.
2025	모의 논술	비교·설명	가의 ㉠과 나의 ㉡이 문명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2025	언어 A-1	비교·비판	가의 ㉠이 형상화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025	언어 C-1	비교·설명	가의 두 아이가 ㉠과 ㉡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총수가 ㉢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26	모의 논술	비교·설명	가의 밑줄 친 '불빛'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것이 나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2026	언어 A-1	비교·설명	가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의 구보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2026	언어 B-1	비교·분석	가의 ㉠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회기와 나의 ㉡에서 나타난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전략 1 교과서 중심의 문학·독서 수업에 충실하기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의 제시문은 대부분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에서 발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든든한 준비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줄거리나 해석을 암기하기보다, 작품이 어떤 성취 기준과 연결되어 있는지, 작가가 형상화한 가치와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시어·상징·갈등 구조·인물 태도 등)이 어떠한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문항에서 확인되듯, 서로 다른 갈래(소설·시·희곡)의 작품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공통된 주제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하게 하므로, 갈래별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함께 숙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수능 국어·문학이나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공부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 방식을 분석하며, 여러 작품을 비교·감상하는 활동은 이미 고등학교 국어·문학 수업과 평가에서 꾸준히 요구되어 온 학습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논술만을 위한 별도의 공부에 부담을 가지기보다, 평소의 국어·문학 학습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 준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기출문제·모의논술·영향평가 보고서를 활용한 '방향성' 학습

경기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기출문제와 해설, 모의논술 문항,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논술 가이드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앞으로 출제될 문항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의 부록에는 각 문항의 일반정보, 출제 의도, 출제 근거(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 예시 답안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본 뒤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과 자신의 글을 비교·점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모의논술은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난이도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략 3 제시문 간 관계 파악과 요약·비교 중심의 쓰기 훈련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은 글자 수 450±50자 내외의 '짧지만, 밀도 높은' 답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까지는 700±50자로 비교적 긴 답안을 작성했으나, 2025학년도부터 450±50자로 분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분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서술을 덜어내고, 논제가 요구하는 핵심만을 정확히 담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글을 장황하게 쓰기보다,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 뒤 ① 핵심어 제시·설명 → ② 제시문 간 관계(공통점·차이점·비판점) 분석 → ③ 결론적 서술의 삼단 구조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으며 핵심 논지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실전 연습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원고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맞춤법·띄어쓰기·문장 호응 등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한된 분량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드러내는 능력이야말로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이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❹ 경기대학교의 건학이념 '眞(진)·誠(성)·愛(애)'와 언어 논술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이 단순히 수험생의 독해력과 작문 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1947년 개교 이래 '진리를 탐구하며(眞),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誠), 자신과 민족·나아가 인류를 사랑하는 참다운 삶(愛)을 추구한다'는 건학이념을 일관되게 지켜 오고 있으며, 언어 논술의 제시문 선택과 논제 구성에도 이러한 가치가 깊이 스며 있습니다.

진(眞)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제시문이 『국어』·『문학』 교과서에서 발췌되며, 문항이 요구하는 개념과 주제 역시 교과 성취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사교육이나 배경지식에 의존하기보다, 교과 수업에서 만난 작품과 개념을 정직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誠)의 관점에서, 짧은 분량(450±50자) 안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일은 한두 번의 연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독서와 쓰기, 다시 읽고 고치는 퇴고 과정을 정성스럽게 반복할 때 비로소 답안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끝으로 애(愛)의 관점에서, 2026학년도 출제 문항이 다룬 '고독과 외로움', '인간애·유대·공감'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묻는 주제였습니다.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수험생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참다운 삶'의 가치를 고민해 보도록 이끄는 '착한 문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대학교 언어 논술은 '교과서(眞)에서 출발하여, 꾸준한 노력(誠)으로 다져지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愛)으로 완성되는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학교 수업에서 만나는 문학 작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읽어 내고, 그 속에 담긴 삶의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 간다면, 논술고사 당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답안을 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한층 성장시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경기대학교 논술의 특징

첫째, 교과서 기반의 논술입니다. 경기대 언어사회계열 논술 문항은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한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사회계열 학생들이 치를 모든 문항의 제시문이 교과서의 본문 또는 핵심 성취기준과 직결되는 탐구활동, 읽기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을 하더라도 문맥을 위한 일부 수정 정도로만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또한 문항의 질문의 구성도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 이상의 해석을 요하는 수준이 아닌 상식적이고 합당한 수준에서 그 취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 기능, 가치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을 평가합니다. 언어사회계열 논술은 개별 교과목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 맥락 속에서 교과 내용을 입체적으로 적용,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기출문제의 경우, A형은 통합사회, 한국사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을 기본 주제로 하면서 정치와 법 과목에서 학습하는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통일에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B형은 통합사회, 세계화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화'를 기본 주제로 하되,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융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비교·설명, 비교·비판 유형의 문항이 정형화되어 출제됩니다. 최근 2025~2026 기출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면, 언어사회계열 논술은 일관되게 '비교·설명' 또는 '비교·비판'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3~4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 제시문의 시사점을 파악한 후, 각 제시문 간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하거나 제시문 중 하나의 특정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입장,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학교 현장의 사회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논술 등 다양한 수업 장면이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고교 교육과정 준수 관련 내용

경기대 언어사회계열 논술 문항은 철저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특히 사회 계열 문항의 경우 「도덕과 교육과정」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교과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2026학년도 기출문제를 예로 보면, [10한사04-08], [10통사05-01], [10통사05-03], [10통사08-03], [12세사06-02], [12정법03-02], [12생윤04-03]에 기반한 학습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접 발췌하여 구성합니다. 제시문의 재구성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시문이 교과서 원문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사용하고 있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서 접한 내용을 토대로 논술에 충분

히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역시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개념과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설계됩니다. 문제의 요구 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글을 재구성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점수 배점의 기준도 명확히 명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 없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❸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분석 및 준비 전략

첫째,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 읽기 훈련을 통한 독해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대 언어사회계열 첫 번째로 필요한 역량은 정확한 독해력입니다. 제시문이 대체로 짧고 각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 편이지만, 논제에 맞게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글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제시문을 모두 답안 구성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논술유형에 맞는 읽기 훈련이 부족하다면 최근 3~4년 동안 출제된 논술 문제의 제시문을 읽기 훈련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각 제시문의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제시문 간의 연계된 주제를 찾는 연습, 제시문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기, 제시문에 근거한 설명 또는 비판하기 등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과 교과서를 탐독해야 합니다. 경기대 논술 제시문은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등 다양한 교과에서 추출하여 3~4개 정도 제시됩니다. 물론 교과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지 않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독해력만 있다면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시사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교과 지식을 충실히 숙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훨씬 쉽게 제시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출제 경향을 미뤄볼 때, 다양한 논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과목인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대 논술전형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이 세 과목 교과서는 충분히 탐독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평가 기준에 맞춘 논술 글쓰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논술고사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시험이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치러지는 논술고사는 사실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논제의 요구 사항을 논리적이면서 압축적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하므로 직접 써보고, 평가받고, 고쳐 쓰는 과정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대 논술은 비교·설명, 비교·비판 유형의 문항이 주를 이룹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제시문의 설명을 위해 답을 어떻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할지, 비교·비판을 위해 2~3개의 제시문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꾸준히 연습해야만 우수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논술

수리 1

1 경기대학교 논술의 특징

자유로운 전공 선택

경기대학교 논술전형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총 239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모집 단위가 자유전공학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논술의 절대적 영향력

전형 특징을 보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논술 90% + 학생부교과 10%'를 반영하고 있으나 전형 결과를 보면 3등급 중반~7등급 후반까지의 최종등록자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평균 등급이 5등급 전후로 형성하고 있어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 입시결과

모집단위명	세부 모집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예비 번호	최종등록자	
						최고	평균
자유전공학부(수원)	언어사회논술	95	3,838	40.40	9	**3.43**	**5.04**
자유전공학부(수원)	수리 논술	90	2,736	30.40	36	**3.32**	**4.85**
자유전공학부(서울)	언어사회논술	39	1,306	33.49	3	**3.29**	**5.37**
자유전공학부(서울)	수리논술	15	313	20.87	2	**3.66**	**5.17**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대학에서 공개된 출제 범위와 기출문제를 보면 제시문을 통해 논리력, 사고력, 표현력을 충실하게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히 유형별, 교과형 문제 풀이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논제이므로 논술고사 평가 취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를 수학, 수학I, 수학II로 제한한 점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배제하여 과목 선택의 영향이 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돋보입니다.

모집단위	유형	출제 분야 및 범위	시험시간
자유전공학부(수원, 서울)	수리 논술	수리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시문 (범위: 수학, 수학 I, 수학 II)	100분

2 고교 교육과정 준수 관련 내용

경기대학교 논술고사에 대한 분석

문항 A-1

출제범위	교육과정
수학, 수학 I	경우의 수, 수열의 합

소수의 개념, 소인수분해, 경우의 수, 수열의 합의 성질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핵심 개념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단순 계산 능력을 넘어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며, 교육과정 내 학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문항 A-2

출제범위	교육과정
수학, 수학 II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미분

삼차함수의 성질, 도함수의 활용, 극한 등 고등학교 수학II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화롭게 적용한 문항입니다. 일부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우수한 문항입니다.

문항 B-1

출제범위	교육과정
수학 I	수열, 등비수열, 지수와 로그, 상용로그

실생활 소재(질병 치료)를 수열과 로그함수로 모델링하는 문항으로, 수학 I 교육과정 내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항 B-2

출제범위	교육과정
수학 II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을 이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수학 II의 교육과정을 준수했습니다. 함수의 대칭성, 좌표평면, 정적분 등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했으며, 선행학습 없이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논술고사의 어려운 난도를 걱정하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수록된 논술고사 응시생의 설문결과를 보면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설문에 70.6%의 학생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했으며 시험시간의 적절성에는 76.8%의 학생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❸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분석 및 준비 전략

경기대학교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며, 특히 실생활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구성과 모델링 능력 평가

교과 개념의 깊이 있는 활용

경기대 수리 논술 문항은 『수학』, 『수학 Ⅰ』, 『수학 Ⅱ』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 되었습니다. 단순 계산보다는 소인수분해와 함수의 성질(문항 A-1), 삼차함수의 그래프와 미분의 의미(문항 A-2) 등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실생활 소재의 수학적 모델링

경기대 논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질병 치료 비용(문항 B-1)과 같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수열이나 로그함수로 모델링하여 최적의 해를 구하는 문항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학적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평가됩니다.

정기고사 및 수능 준비와의 연계

기본기가 곧 논술 실력

수리 논술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명시된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평소 학교 정기고사와 수능 유형의 문제를 풀며 쌓은 개념 이해력과 추론 능력은 논술 준비의 기초가 됩니다.

사고 과정의 논리적 서술

수능이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논술은 풀이 과정을 단계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채점 기준 또한 단계별 계산 결과와 논리적 근거 제시에 배점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평소 문제를 풀 때 과정을 꼼꼼히 적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학별 출제 유형 최적화 및 필사

공식 자료 적극 활용

경기대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제 의도,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대학이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정답지'와 같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해당 대학이 선호하는 답안 전개 형태와 평가 주안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시 답안 필사의 효과

대학이 제공한 모범답안을 직접 써보는 과정은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을 넘어, 감점 없는 완벽한 답안의 구조를 몸소 익히는 과정입니다. 채점 항목(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등)에 맞춰 자신의 답안을 교정하는 훈련은 실전에서 고득점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대 논술은 '교과서 중심의 기본 원리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출제되므로,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학교 수업과 대학의 공식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전략이 최선입니다.

1 경기대학교 논술의 특징

“수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자”

경기대학교 논술은 내신성적과 수능 성적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학생 개개인의 수리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경기대학교만의 논술 고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논술 실력만으로 합격의 주인공이 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논술 반영 비율의 극대화(90%)

전형 요소 중 논술고사의 실질 반영 비율이 90%에 달해, 학생부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논술 성적만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생부교과 전형에서는 합격할 수 없는 성적의 학생까지도 수학적 소양이 갖춰져 있다면 합격하고 있습니다.
※ (최종)등록자 내신 성적(70%) : 약 5.1등급-5.5등급

통합적 사고력과 기초 역량을 확인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며, 자연 계열(수원/서울 자유전공학부)은 수학의 핵심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❷ 고교 교육과정 준수 관련 내용

경기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논술 문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논술은 문항은 '선행학습'이 아닌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평가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과정 내 출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증명하듯, 모든 논술 문항은 수능 공통과목인 [수학], [수학 Ⅰ], [수학 Ⅱ]에서 출제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대학 수준의 내용이 아닌,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실천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항이 설계되었습니다. 제시문은 교과서의 정의와 정리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논술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제시문은 고교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고교 수준의 지문을 활용하여 생소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교 교사의 철저한 검토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실제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의 문제 설계

별도의 사교육이나 심화 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과 교과서 학습을 통해 익힌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논리적인 답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분석 및 준비 전략

“기본에 충실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합격을 결정한다.”

기본 개념의 응용과 통합적 사고력

최근 경기대학교 수리논술은 특정 공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을 수학적 언어로 변환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부분 점수를 확보하는 단계별 접근

경기대학교 수리논술은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적절한 정의나 중간 단계의 올바른 풀이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라고 포기하기보다, 아는 범위 내에서 논리적 흐름을 최대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기반의 시간 관리 연습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간 배분이 합격의 당락을 가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기출 문항과 채점 기준(예시 답안)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신이 쓴 답안을 대학이 제시한 모범 답안과 대조하며,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스스로 피드백하는 연습이 효과적인 합격 전략입니다. 하지만, 답안 작성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에 제시된 채점 기준을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서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정기고사에서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논술 가이드북을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논술 가이드북에는 논술우수자전형에 대한 안내로 시작하여
논술 준비를 위한 출제위원, 고교 교사의 가이드, 합격생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방침과 문제의 구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을 참고하여 논술시험에 대한 방향 및 준비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격생이 말하는 논술시험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선배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만큼 중요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3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합격생 인터뷰

1) 언어·사회 논술 합격생 인터뷰
2) 수리논술 합격생 인터뷰



1) 언어·사회 논술 합격생 인터뷰

Interview 01

자유전공학부(수원) | 26학번 합격생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 및 준비 전략(방법)

수험 생활 중 마주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은 희망 대학에 진학하기에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잠재력을 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전형을 고민한 끝에, 논리적 사고력과 독해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논술우수자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대학교를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전공학부' 선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던 저에게, 입학 후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며 적성을 찾아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대학교의 학사 시스템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기본기에 충실한 독해력'이었습니다. 인문 논술은 화려한 수사법보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본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매일 거르지 않고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며, 짧은 시간 내에 글의 핵심 내용을 오차 없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뒤에는 실전 연습에 돌입하여, 경기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기출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작성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학습 효율을 높인 저만의 차별화된 방법은 '시간제한 없는 무한 리라이팅(Rewriting)'이었습니다. 단순히 답안 작성 후 해설이나 모범답안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글이 완성될 때까지 끈질기게 다시 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해의 정교함은 물론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 압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 수록된 합격생 답안을 필사하며 대학 측이 선호하는 논리적 흐름을 체득하였고, 문항당 4~5회 이상의 리라이팅을 거치며 답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시험을 한 달 앞둔 시점에는 정형화된 글쓰기를 목표로 마무리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빈출되는 문학적 요소와 해석 포인트, 주요 표현들을 숙지했습니다. 비문학 영역 역시 당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시사 이슈를 미리 점검하며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의 결과, 실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경기대학교가 요구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많은 수험생이 논술전형의 높은 경쟁률을 마주하며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되곤 합니다. 그러나 논술을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숫자에 불과한 경쟁률에 매몰되지 않고 본인만의 학습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체감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논술이 결코 단기간의 '벼락치기'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논술은 요행을 바라는 시험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축적한 독해력과 사고력이 합격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정직한 전형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텍스트를 읽고 쓰는 과정을 묵묵히 지속하는 이만이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 기간 중 타인의 답안과 본인의 글을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은 본인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독립적인 과정입니다.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논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비약적으로 성장한 문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의 압박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소통과 정서적 유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관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비로소 최선의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값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유전공학부(수원) | 26학번 합격생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 및 준비 전략(방법)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신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목표하는 학과에 진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돌파구로 정시를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수능 준비가 막막한 상태에서 1년 안에 원하는 성적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게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로 다가온 것이 바로 논술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책을 세 권도 읽지 않을 정도로 독서와 거리가 멀었고, 글쓰기 경험이라곤 초등학생 때 운문 부문에서 상을 탄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고3 6월, 조금 늦은 시작이었지만 논술 공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글을 읽고 쓰는 연습에 매진하면서,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깨달은 합격의 비결 세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체적'으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저 글자만 눈으로 훑는 읽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글쓴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문장 사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글을 읽었지만, 논술을 준비하며 핵심 키워드와 중심 문장을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둘째, 찾아낸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독해가 바탕이 되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논술은 화려하거나 독창적인 글을 뽐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글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핵심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정돈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결국은 반복적인 연습이 답입니다. 저는 논술의 핵심이 '글을 쓰는 감각'을 기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며, 제 답안을 모범답안의 흐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꾸준히 뒤따를 때 비로소 성공이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과정들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제가 합격생 수기를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합격의 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논술우수자전형은 결코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단순히 쉽게만 생각했으나, 직접 글을 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연습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께서도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에, 취침 전 답안을 한 번 더 작성하거나 모범답안을 필사하는 등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 합격이라는 보상으로 이어졌다고 믿기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과정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정진하신다면, 그 끝에는 찬란한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이곳 경기대학교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서울) | 26학번 합격생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 및준비 전략(방법)

처음부터 논술우수자전형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며 다양한 전형을 탐색하던 중,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초기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막연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수답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의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을 대조하며 공통적인 논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탁월한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별도로 기록하여 직접 답안에 적용해 보며 제것으로 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로, 제한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는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초기에는 내용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마무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집필 전 개요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서론의 방향과 본론의 근거를 사전에 간략히 정리한 후 작성에 임하자, 글의 흐름이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 조건을 설정하여 반복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시간 배분 감각을 익힌 것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느낀 부분은 '논제의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시문을 요약하는 데 급급했으나, 점차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일한 제시문이라도 논제의 요구에 따라 답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논제 속 핵심 키워드에 표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메모하며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퇴고와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작성한 글을 스스로 다시 읽으며 논리적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나 중복된 표현을 수정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전 글을 다시 써보며 더 나은 표현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을 빠르게 쓰는 것보다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본질임을 체득했습니다. 논술 역량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보다 반복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자신의 글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몰라보게 향상된 글쓰기 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전형이 특별한 재능보다는 꾸준함과 올바른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글을 아주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법이 아니라,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논리를 전개하는 역량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실력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정체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일정 기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제 공부 방식이 맞는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며 계속 써 내려갔던 과정이 안정적인 답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우수자전형 준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쓰고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고의 틀이 잡히고 나만의 표현 방식이 생겨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 합격의 순간을 꼭 직접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 수리논술 합격생 인터뷰

Interview 01

자유전공학부(수원) | 26학번 합격생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 및 준비 전략(방법)

저는 단순한 문제 풀이의 반복보다는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고 논리적인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데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결과만큼이나 풀이 과정의 타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저의 이런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리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저만의 사고력과 수학적 표현 능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수학을 공부할 때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풀이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서술형 평가나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는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작성하며, 수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연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한 논술 자료와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면 곧바로 식을 쓰기보다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 먼저 정리한 뒤 풀이를 시작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의나 성질을 명확히 언급하며 논리적 연결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출제 경향을 익히는 동시에 스스로 답안을 첨삭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생략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제한 시간을 두고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을 통해 시간 관리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는 시야와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수리 논술에서 요구하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먼저 논술우수자전형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하자면, 논술은 단기간에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글이 뜻대로 써지지 않고 시간도 부족하며, 첨삭을 받아도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글쓰기에 소질이 없나?"라며 자책하기보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영역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논술은 타고난 재능보다 논리 구조를 익히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합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출문제는 그 어떤 참고서보다 가장 중요한 교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교재를 섭렵하기보다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출제 의도와 답안의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논술은 당일의 컨디션이나 긴장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험입니다. 평소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실전에서 당황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완벽한 글'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논리적인 답안을 완성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고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연습에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논술의 감을 잡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수원) | 26학번 합격생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 및 준비 전략(방법)

제가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저의 학습 성향과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유독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논술 전형이 저에게 가장 적합한 기회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경기대학교의 전년도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을 반복해서 풀며 유형과 난이도를 체득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타 대학의 기출문제까지 폭넓게 섭렵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려 노력했습니다.

논술 준비와 병행했던 꾸준한 수능 수학 학습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통해 다진 탄탄한 기본 개념과 응용력은 논술 문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연습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독학으로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려다 보니, 정답은 맞히더라도 이를 평가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한 풀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고 끊임없이 수정하는 퇴고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답안을 논술 형식에 맞춰 정교하게 작성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며 신중하게 답안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묵묵히 반복해 온 문제 풀이 훈련 덕분에, 문제의 의도에 맞는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주변의 시선이나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논술은 다른 전형에 비해 변수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 더 쉽게 불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방향과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신뢰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시간은 단순한 입시 준비를 넘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소중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수준을 넘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해 보는 경험은 대학 입학 후의 학업에서도 큰 자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사고와 표현이 명확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면에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서울) | 26학번 합격생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 및 준비 전략(방법)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큰 재미를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흥미는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고, 수학에서만큼은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에 강점이 있는 반면, 국어나 영어 같은 인문 계열 과목에는 다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우수자전형이 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수학적 기본기를 탄탄히 쌓았고, 단순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권의 문제집을 겉핥기식으로 풀기보다, 한 권을 선택하더라도 그 안의 모든 문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평소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 줄 기회가 많았는데, 최대한 쉽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던 경험들이 논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유형 암기에 매달리기보다 기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했습니다. 풀이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칸이 나뉜 노트를 활용해 서술하는 연습을 했고, 문제집을 풀 때는 해설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별표를 해두었다가 며칠 뒤 다시 도전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질문하며 끝까지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집 한 권을 완벽히 마친 후에는 수능 수학 대비에 몰입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수능 수학의 출제 경향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수능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친 덕분에 시험 당일, 막힘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풀이 과정 또한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작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논술우수자전형은 경쟁률이 워낙 높고 경쟁자들의 실력을 가늠하기 어려워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역시 준비 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실력이 아니라 내 수학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나 숫자에 불과한 경쟁률에 마음을 뺏겨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논술을 준비하며 직접 느낀 몇 가지 핵심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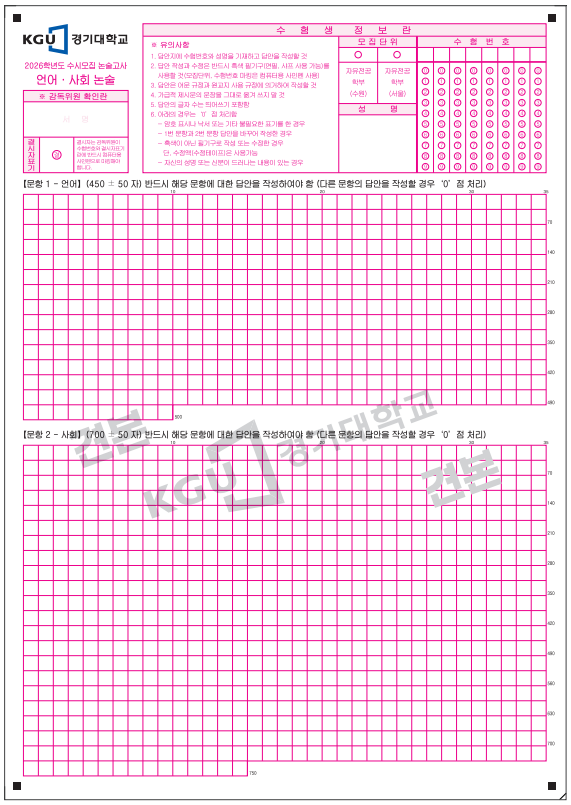
첫째, 친구들과 수학 문제를 풀이하며 설명해 보는 경험을 쌓으세요. 저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자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풀이가 될지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이 습관은 논술 당일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제 답안지만 보고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했고, 결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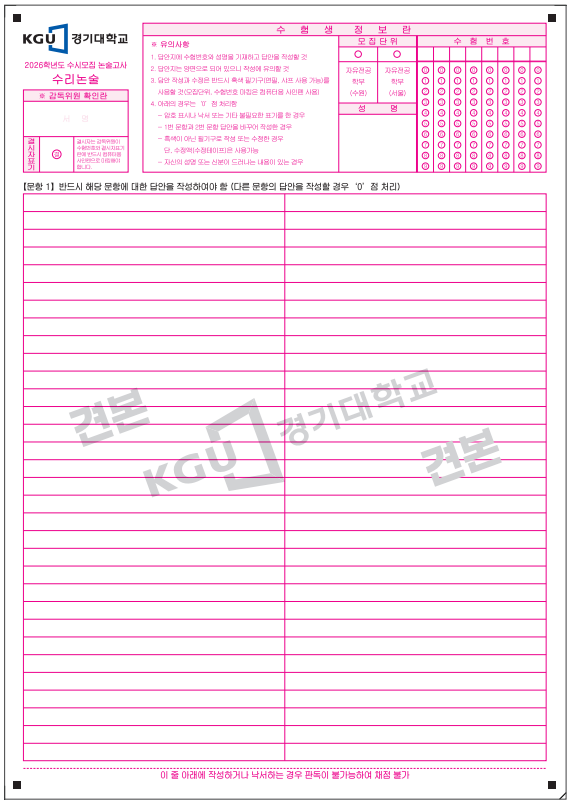
둘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긴장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첫 논술 시험 당시, 다른 전형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무척 긴장했습니다. 과도한 긴장은 실력 발휘를 방해했고 결국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다른 학교 합격 소식을 접하며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채 경기대학교 논술에 응시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전을 겪은 후였고 마음의 여유도 있었기에 제 실력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었고, 결국 최초 합격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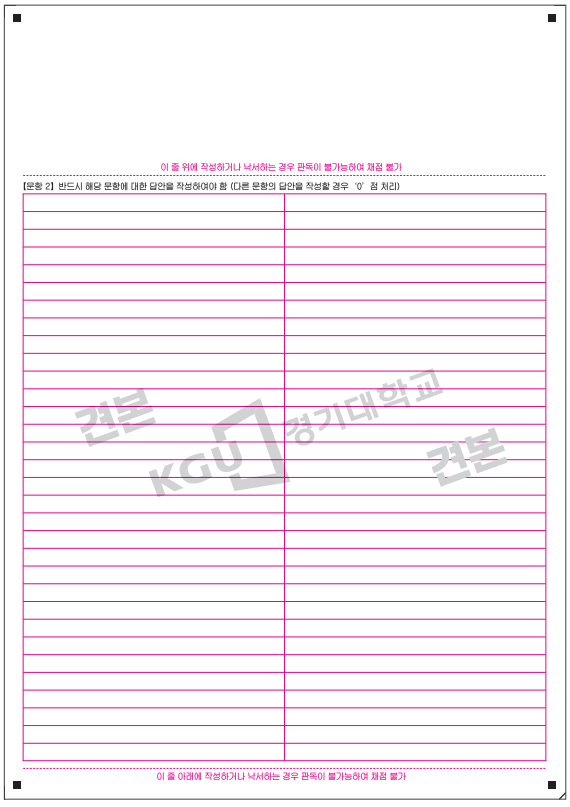
셋째,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고사장까지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여 1시간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도로 정체로 인해 차가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는 돌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많은 수험생이 차에서 내려 고사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고, 입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응시 자체를 포기한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여유 있게 출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 논술우수자전형 참고사항

1) 답안지 양식 ※ 202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답안지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KGU 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언어 · 사회 논술
※ 감독위원 확인란
수 험 생 정 보 란
※ 유의사항
1.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
2.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을, 시험 시작 전에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여,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3.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4.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함
6. 아래의 경우는 '0' 점 처리함
– 답을 표시하고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로 작성 또는 수정한 경우
단,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가능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집단위
자유전공 학부 (수원)
자유전공 학부 (서울)
성 명
수험번호
【문항 1 – 언어】 (450 ± 50 자) 반드시 해당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 점 처리)
【문항 2 – 사회】 (700 ± 50 자) 반드시 해당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 점 처리)


KGU 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수리논술
※ 감독위원 확인란
수 험 생 정 보 란
※ 유의사항
1.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
2. 답안지는 양면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에 유의할 것
3.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을, 시험 시작 전에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여,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4. 아래의 경우는 '0' 점 처리함
– 답을 표시하고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로 작성 또는 수정한 경우
단,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가능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집단위
자유전공 학부 (수원)
자유전공 학부 (서울)
성 명
수험번호
【문항 1】 반드시 해당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 점 처리)
이 줄 아래에 작성하거나 낙서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이 줄 위에 작성하거나 낙서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문항 2】 반드시 해당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 점 처리)
이 줄 아래에 작성하거나 낙서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2) 수시모집 논술고사 수험생 유의사항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수험생 유의사항 내용 중 일부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수험생 유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1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 사용 가능
- 연필, 샤프 사용 가능하지만 흑색 필기구 이외의 색깔펜은 절대 사용 불가
- 답안 수정 시 교정부호를 사용하거나 지우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물품을 지참한 경우에 한함 **(별도의 수정용 물품 제공 없음)**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 반드시 감독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처리
- 모집단위, 수험번호 표기란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

2 [언어사회영역] 답안작성 유의사항

- 답안 작성은 본교에서 지급한 답안지를 활용해야 하며,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 '답란'의 **각 문항에 표기된 글자 수 내에서 답안 작성**

3 [수리영역] 답안작성 유의사항

- 답안 작성은 본교에서 지급한 답안지를 활용
- **답안지는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 작성에 유의**
- **'답란' 중간에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선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우측으로 답안 작성**



5 논술우수자전형 FAQ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모의논술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모의논술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며, 모의논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대학교는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 논술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전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논술에 응시하면 작성한 내용을 채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선착순으로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논술이 끝난 후에는 문항 해설 영상(모의논술 문항 해설 및 출제 의도)이 제공되어, 논술우수자전형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의논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는 언어·사회논술 또는 수리논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는 개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모의논술은 7~8월 중 실시 예정이며, 고교별로 공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문 및 경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정보를 참고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경우,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의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특정 학부 및 전공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예술체육대학 전 모집단위, AI 컴퓨터공학부, 관광문화대학 예체능계열(연기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실용음악학과) 전공 진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 후 전공 선택에 대한 자유는 있지만, 일부 전공에 대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언어·사회(수리) 논술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연계(인문계) 학과 전공선택이 가능할까요?

자유전공학부로 선발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학과(학부,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후에도 전공 변경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로 선발된 학생은 주전공 외에도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창의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경영대학 산업경영공학과는 다전공 이수에서 제외됩니다.

자유전공학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논술 가이드북의 '전공자율선택제 안내' 또는 경기대학교 전공설계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고 출신인데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에 고교유형의 제한이 없으므로 국외고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고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의 반영 방법에 있어 비교내신대상자로 분류됩니다(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성적 산출을 할 수 없는 경우). 비교내신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논술 고사 점수를 학생부[교과] 점수로 반영합니다.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할 때 어떤 모집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유전공학부(서울)과 자유전공학부(수원) 지원 시 지역(수원, 서울) 자체보다는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캠퍼스는 모집인원이 적어 입학 결과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반면 수원캠퍼스는 모집인원이 더 많아 경쟁률과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울이 더 유리하다', '수원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교과 성적과 지원 전략, 캠퍼스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격 모집단위(수원, 서울)가 2학년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역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6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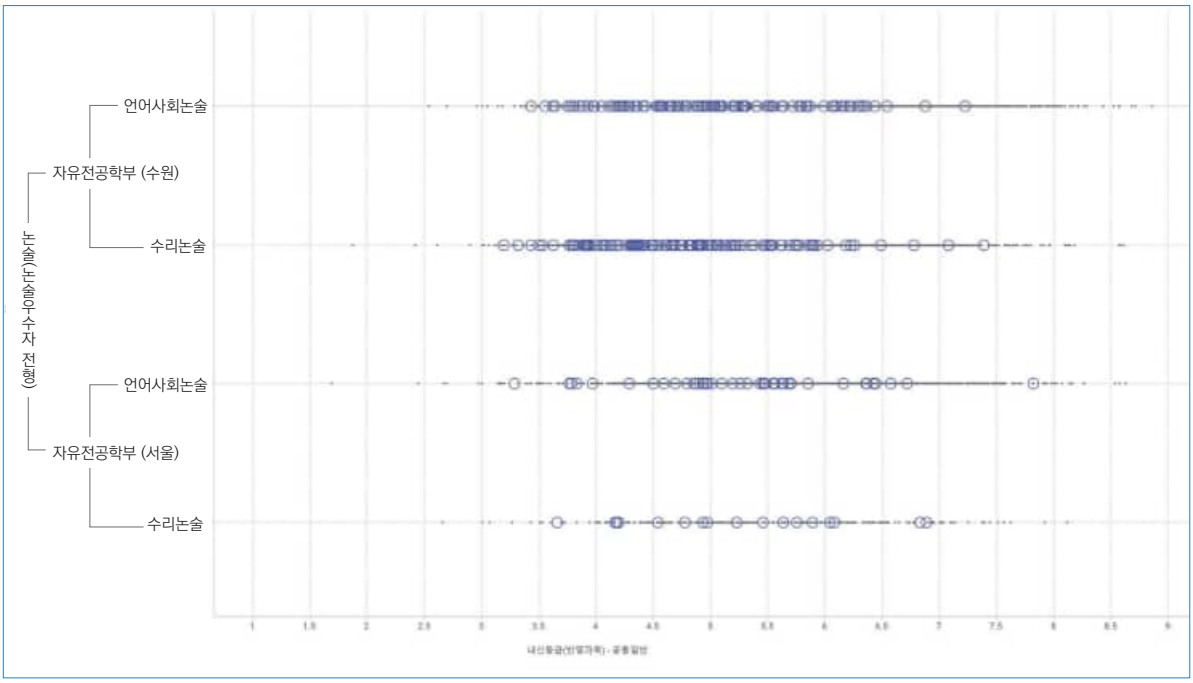
1) 논술우수자전형 경쟁률 및 등록결과

캠퍼스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실질경쟁률	예비번호
수원	자유전공학부(수원)	언어사회논술	95	3,838	40.40	34.82	9
		수리논술	90	2,736	30.40	25.02	36
서울	자유전공학부(서울)	언어사회논술	39	1,306	33.49	27.58	3
		수리논술	15	313	20.87	15.07	2
합계			239	8,193	34.28	28.71	50

2) 논술우수자전형 전형결과(교과)-공통일반선택과목만 산출한 결과

캠퍼스	모집단위		최초합격자			최종합격자			최종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50% cut	70% cut	100% cut	평균
수원	자유전공학부(수원)	언어사회논술	3.554	5.073	7.220	3.428	5.013	7.220	4.965	5.490	7.220	5.044
		수리논술	3.191	4.731	7.387	3.191	4.754	7.387	4.810	5.115	7.387	4.849
서울	자유전공학부(서울)	언어사회논술	3.285	5.303	7.820	3.285	5.294	7.820	5.431	5.636	7.820	5.370
		수리논술	3.656	5.268	6.885	3.656	5.246	6.885	4.934	5.459	6.885	5.170

3) 논술우수자전형 산점도 (•불합격자 ○합격자)



7 전공자율선택제 안내

1) 경기대학교 소개

전공자율선택제 비전 및 전공능력

전공자율선택제 비전

비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자기주도적 융합인재 양성

미션

- 학제간 협력적 교류를 통한 다양한 학문 분야 탐색
-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학제간 융합 연구 및 교육
-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 강화
- 개인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 실제의 삶의 설계

인재상

-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섭형 인재
- 미래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인재
-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삶을 설계하는 성찰형 인재
-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인재

전공자율선택제 전공능력

연번	전공능력(명)	전공능력정의
1	융복합적사고력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여 새롭고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2	변화적응성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3	자기성찰력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4	진로탄력성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및 지원조직



자유전공학부 교학팀(수원)
관광문화대학 교학팀(서울)

전공설계
융합지원센터

단과대학
교학팀

전공자율선택제 유형 I 자유전공학부(수원, 서울)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을 위한	전공자율선택제 유형 II 단과대학 통합선발
1. 교육과정 운영(수업 운영) 2. 전공선택 및 배정 3. 학사 일정 등 안내 4. 진로지도교수 상담 운영	1. 학사제도 설계 2. 교육과정 개발 3.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4. 전공 및 진로탐색 지원	1. 교육과정 운영(수업 운영) 2. 전공선택 및 배정 3. 학사 일정 등 안내 4. 진로지도교수 상담 운영

학습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 **진로 및 취업지원** 인재개발처 | **대학생활 상담** 대학생활상담원 | **SW역량강화** SW중심사업단 | **창업지원** 창업지원단 | **국제화역량** 국제교류팀

경기대학교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지원 및 미래비전 제시

2) 전공자율선택제 소개

전공자율선택제란?

1학년 때 진로 및 희망 전공에 대해 탐색하고 2학년 진급 시 주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자유전공학부 교학팀(수원)
관광문화대학 교학팀(서울)

- 1학년 소속 : 자유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수원)
  관광문화대학 자유전공학부(서울)
- 전 학과(전공) 중 자유롭게 주전공 선택
  (전공자율선택제 미참여 학과 제외)
- 주전공 선택 범위 내 자유롭게 주전공 변경 가능
- 졸업 전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필수
  (공학계열 주전공 선택시 예외)

단과대학 교학팀(통합)

- 1학년 소속 : 인문대학 인문학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소프트웨어경영대학 소프트웨어경영학부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부
  창의공과대학 창의공학부
  관광문화대학 관광문화학부
- 단과대학 내 자유롭게 주전공 선택
  (전공자율선택제 미참여 학과 제외)
- 주전공 선택 범위 내 자유롭게 주전공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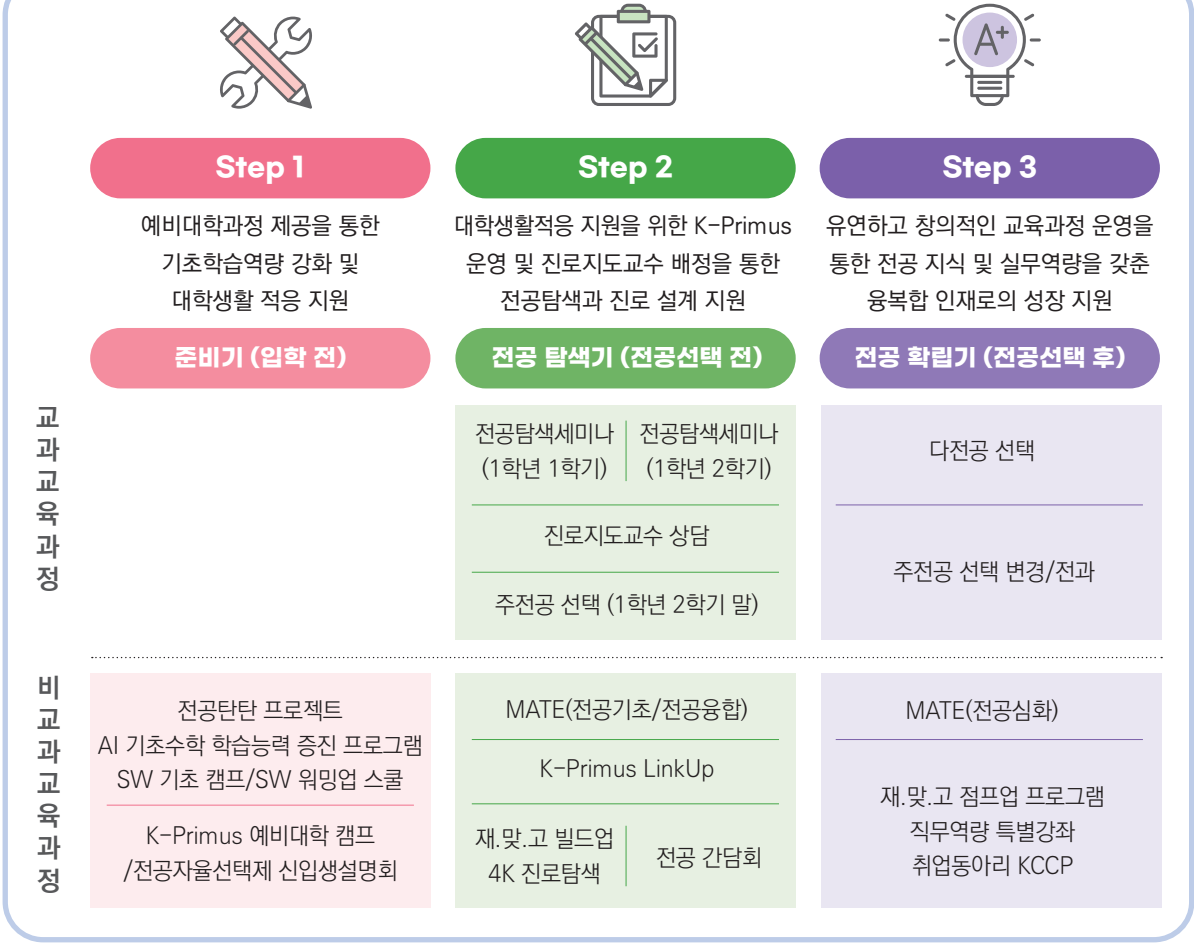






입학~1학년	전공 배정	선택전공 이수	졸업
필수교과목 이수 (전공탐색세미나, 전공설계세미나)	**2학년 진학 시** **주전공 선택**	**자유전공학부** [다전공 필수 이수, 공학계열 주전공시 예외]	**졸업인증제** 심화전공인증 다전공인증 현장실습학기제인증 외국어인증 KGU⁺ 인증
비교과 참여 (MATE 프로그램 등)	**자유전공학부** [전체 학과(전공) 중 주전공 선택]	**단과대학(통합)** [단일전공 이수]	※ 홈페이지 참조
상담 참여 (진로지도교수 상담)	**단과대학(통합)** [단과대학 내 주전공 선택]	**선택 학과(전공)**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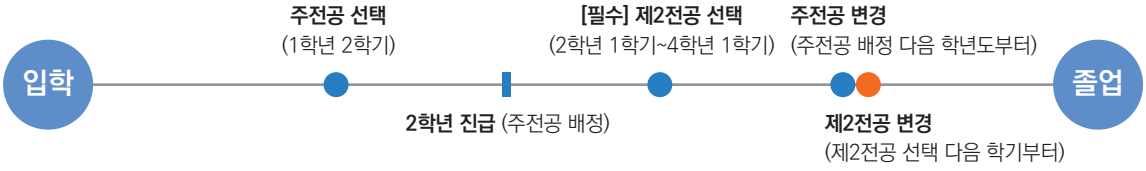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 전공 설계 및 선택 로드맵



3) 전공선택 로드맵

유형 I 자유전공학부(수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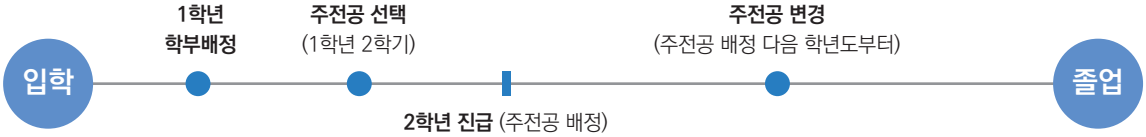
- 전체 학과(전공) 중 주전공 자율 선택 가능(전공자율선택제 미참여 학과 제외)
-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의무(공학계열 주전공 선택 시 면제)



유형 II 단과대학통합선발

- 전체 학과(전공) 중 주전공 자율 선택 가능(전공자율선택제 미참여 학과 제외)

인문대학(통합): 인문학부
융합과학대학(통합): 융합과학부
사회과학대학(통합): 사회과학부
창의공과대학(통합) 창의공학부
소프트웨어경영대학(통합): 소프트웨어경영학부



4) Union 기반 학습-상담 공동체

Union 이란?



전공자율선택제 입학 신입생(30명 내외)



전담 진로지도교수



재학생 멘토

학습-상담 공동체

- 전담 진로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 1학년 필수 교과목 수강
- 전담 진로지도교수의 대학생활, 진로 및 전공 설계 관련 상담
- 대학생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 참여

5) 전공 및 진로탐색 교과목

1학년 1학기 : 전공탐색세미나

- 대학 소개(학사제도, 비교과 등)
- 주관적·객관적 자기이해
- 미래사회 및 직업탐색
- 대학 내 전공 탐색
- 전공 이수체계 안내

1학년 2학기 : 전공설계세미나

- 일과 직업의 의미와 가치 이해
- 직무와 노동시장 분석
- 희망 진로 실무 종사자 인터뷰
- 희망 전공 선택
- 전공 학습 준비

전공탐색세미나 (상세)

- 1주차: 오리엔테이션, 전공자율선택제 소개, 담당교수 소개
- 2주차: Union 소개
- 3주차: 전공박람회(전공탐색 커넥트데이)
- 4~5주차: 전공탐색 결과공유 1 – 전공탐색커넥트데이 참여결과 공유
- 6~13주차: 전공체험프로젝트
- 14~15주차: 전공탐색 결과공유 2 – 전공체험프로젝트 참여결과 공유

6) 전공 및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 및 비교과

상담

전담 진로 지도교수

1. 진로, 커리어 관련 1차 상담 → 희망 학과(전공) 교수, 전문 상담 부서 연결 2차 상담
2. 학업 어려움, 대학 부적응 관련 1차 상담 → 전문 상담 부서 연계 2차 상담
3. 휴학, 복학 등 대학생활 관련 상담

전공설계 융합지원센터

전공 및 진로 설계 상담을 위한 연구,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 희망전공 수요조사 및 전공능력 진단, 모니터링
- 대학 적응에 대한 진단 및 결과분석
- 상담 수요그룹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기관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개별 상담 진행
- 심리, 정서 위기 : 학생상담센터
- 학습 어려움 : 교수학습개발센터
- 진로, 커리어, 취업 및 창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지원단

비교과

재학생 멘토

1. 학우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멘토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독서 토론 모임, 건강 관리 모임 등)
2. 대학생활, 전공, 진로 등 대학 선배로서의 Peer Tutoring
3. 교양수업, 비교과, 대학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

개별 학과 (전공)

전공 연계 비교과 MATE 프로그램
- 해당 학과(전공)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전공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전공 관련 기초 학습 기회 제공
- 전공 관련 다양한 경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지원 부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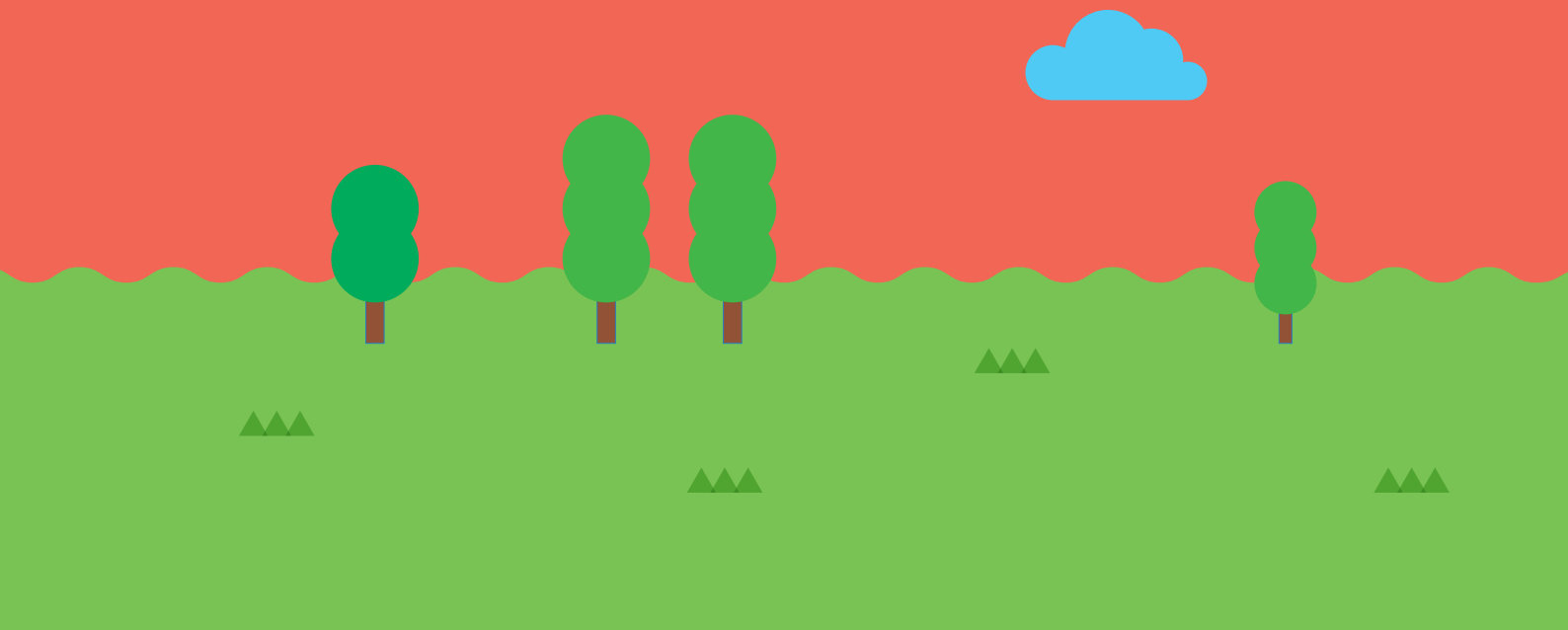
[예시] KGU A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 교수학습개발센터
- 이공계열 및 상경계열 진학 희망 학생을 위한 기초 수학(Math) 능력 프로그램 운영
- 사전 능력 진단 평가를 통한 기초 수학 능력 진단
- 희망 학과(전공)을 고려한 미이수, 보완 범주 점검 및 학습 유도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Chapter 02

1. 2026학년도 모의논술 기출문제 문항 및 해설 영상 안내
   1) 모의논술 문항(언어·사회)
   2) 모의논술 문항(수리)
   3) 해설영상 안내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1)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문항, 해설, 예시답안(언어·사회)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문항, 해설, 예시답안(수리)



1 2026년 모의논술 기출문제 문항 및 해설 영상 안내

1) 모의논술 문항(언어·사회)

문제 1 **가**의 밑줄 친 '불빛'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것이 **나**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450 ± 50자)

가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나희덕, 〈산속에서〉, 『고등학교 문학』

나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서울의 어느 산동네에는, 이른 아침마다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우유 배달을 하는 김만석 할아버지, 손수레에 폐지를 실어다 파는 송 씨 할머니가 살고 있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김만석은 송 씨를 만나게 되고,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살아온 송 씨를 돕기 위해 손녀인 연아가 일하는 동 주민 센터에 함께 찾아간다.

연아: (벌떡 일어서며)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만석: 접때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돈 나온다 그랬지?
연아: 독거노인 보상 급여요?
만석: 얼마나 나와?
연아: (송 씨를 흘끗흘끗) 그거야 형편에 따라 다르죠. 자식이 있고 없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송 씨: (쳐다보는 눈길이 무안하다.) 됐어요. 전 괜찮아요. (못 참고 나간다.)
만석: (붙잡고) 그놈의 괜찮다는 소리…….

만석, 송 씨의 손을 잡은 채…….

만석: (연아에게) 아, 대충……!
사람들: (깜짝)
연아: (쫄아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올걸요.
만석: 뭐! 얼마!
연아: 10만에서…… 15만…….
만석: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일러 기름값도 안 되는…….
송 씨: (멍하게) 그 많은 돈을 준다구요?
연아: 네……!
송 씨: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인데……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 (따라 인사하며)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감사한 듯, 공손히 또 아주 깊이 절을 한다. 동 주민 센터 직원들 모두에게 하듯.

송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아: …….

깊이 허리를 숙이는 송 씨를 따라 연아도 얼떨결에 절을 한다. 영문 모르고 덩달아 인사를 하는 직원들. (경과) 연아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동 주민 센터 직원들. 한마디씩 거든다. 직원들, "최대한 빨리 신청해 봐." "독거노인 자금 혜택 자료 다 뽑아 놨지?"

연아: 할머니, 일단 주민 등록증 주세요.
송 씨: …….(머뭇머뭇)
연아: 주민 등록증요?
송 씨: 그게 없는데…….
연아: (놀라서 송 씨를 보며) 네? 아예 없으세요?
송 씨: (고개 떨구는)

송 씨, 대답을 못하고 발끝만 바라본다.

만석: (끼어들고) 만들어. 당장 만들면,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송 씨: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아요.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랏일 하는 바쁜 분들인데…….
직원: 헛, 나랏일요……. 나랏일이래……. 아하하하……. 연아 씨,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려.
만석: 거참 시원시원하게 일들 잘하는구먼…….
연아: 그럼 일단 등록 신청부터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 씨: 송 씨요.
연아: 그다음은요?

송 씨: 그냥……. 송……. 그게……. (머뭇)

이때 만석 소리.

만석: 이뿐이야.
연아: 예?
만석: 이뿐이라니까……. 송이뿐!
연아: (송 씨에게) 진짜요?
만석: (버럭!)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송이뿐이라구. 송이뿐!
연아: (이름을 적는데…….)
만석: 아니 이쁘다 할 때 이쁜 말고……. 송이, 뿐이다 할 때, '이뿐', 그래……. 빨리 써……!

연아,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만석, 송 씨를 보며 눈을 찡긋찡긋…….

강풀 원작 / 이만희 각색, 〈그대를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가**를 바탕으로 **나**의 두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설명하고, **다**의 상황에서 **가**의 ㉠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의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기업은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

『고등학교 경제』

나

(1) 사고로 다리가 잘린 인도의 소년 카말은 의족이 없어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다닌다. 카말과 같은 세계의 절단 장애인 중 80%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에 사는데, 의족의 가격이 수천 달러를 넘기에 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엘 새들러는 개발 도상국 장애인에게 경제적이고 튼튼한 의족을 공급하는 기업을 인도에 창업하였다. 대학에서 기계 공학 및 디자인을 공부한 새들러는 오랜 연구 끝에 다축 인공 관절을 개발하였다. 이 인공 관절은 카말을 제대로 걷게 하였는데, 보행 자세도 자연스럽고, 보조 도구 없이 양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 의족은 조립식으로 개당 2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인도의 장애인 1,300여 명에게 보행의 자유를 안겨주었다.

(2) 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작은 기업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일감 몰아주기란 쉽게 말해 대기업에서 특정한 하청 기업에 관련 일거리들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특정 하청 기업 대부분이 해당 기업의 자회사라는 데 있다. 모자 관계처럼 대기업이 모(母) 역할을 하고, 하청 기업이 자(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는 자연스레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에 모회사의 가치 역시 상승한다. 다른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얻을 기회를 빼앗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산업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기술 혁신보다는 근로시간 증가, 취업자 수 증가와 같은 노동 투입의 증가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회원국 경제를 생산성 관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에서 기술 혁신과 같은 요소의 기여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기술 발전 없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산업 연구원은 "기존 정보 통신 기술에서 혁신이 빠르게 퍼진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혁신이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직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경제』

2) 모의논술 문항(수리)

문제 1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미분가능인 함수로 표현될 때, 도함수를 이용하여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 도함수는 최대 이익이나 최소 비용 등 사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하다. **『고등학교 수학 II』**
나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가진다. **『고등학교 수학 II』**

논제 1 **$a>0$일 때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a, 0)$와 $B(a, 0)$를 지나고, y절편이 a^2인 포물선이 있다.**

(1) 이 포물선 위의 두 점 C와 D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다리꼴 $ABCD$중 넓이가 최대일 때 C와 D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단, C와 D의 y의 좌표는 모두 양수이다.

(2) (1)에서 구한 C와 D를 잇는 선분을 하나의 지름으로 갖는 원과 y축이 만나는 점을 E라 할 때, $\overline{CE}\cdot\overline{DE}$를 a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문제 2 가, 나 그리고 다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함수 $y=f(x)$의 $x=a$의 에서의 미분계수 $f'(a)$는 $$f'(a)=\lim_{\Delta x\to 0}\frac{f(a+\Delta x)-f(a)}{\Delta x}$$ 『고등학교 수학 II』
나	첫째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 한다. 『고등학교 수학 I』
다	수직선 위를 속도 $v(t)$로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a$에서 $t=b$ 까지 움직인 거리 s는 $$s=\int_a^b \lvert v(t)\rvert\, dt$$ 『고등학교 수학 II』

논제 2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 속도 $v(t)$가 〈보기〉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때, 아래에 답하시오.

보기

a) $v(0)=0$이다.

b) $0\le t\le 1$에서 $v(t)$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다.

c)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v(t+1)=-\frac{1}{2}v(t)$이다.

d)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미분계수 $v'(t)$가 존재한다.

(1) $0\le t\le 1$에서 t에 대한 $v(t)$의 식을 구하시오.

(2) 점 P가 시각 $t=0$에서 $t=10$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3) 해설영상 안내

1) 언어·사회

2) 수리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1)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문항, 해설, 예시답안(언어·사회)

문항 A-1[언어]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의 구보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450 ± 50자)

가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사실, 사오 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壽男)이나 복동(福童)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중략)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고등학교 문학』

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수선화에게〉, 『고등학교 문학』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1 [언어]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고독, 소외
예상 소요 시간	50분	

출제 의도

현대 사회에서 '고독'과 '소외'는 인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대인이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외로운 느낌이 아니라, 근대적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근대인의 고독은 신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기 발견, 혹은 중세의 봉건적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의 탄생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근대적 인간', 공동체의 윤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근대적 개인'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불안이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경쟁과 효율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고립(감)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간 관계는, 진정한 소통이나 정서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만남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유용성에 따라 수시로 형성되거나 해체되곤 한다. 그러나 깊은 신뢰나 헌신 대신, 피상적인 친밀감이나 즉각적인 효용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간 관계는 사람들의 정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간 관계 마저 도구화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술고사에서는 한국 현대 문학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인간의 고독이라는 문제를 큰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읽고, 그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의 고독이 어떻게 근대인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지 발견해야만 한다. 나아가 그러한 정서를 대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포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작품 속의 '구보'는 근대도시 경성의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특징들을 관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구보는 백화점이나 전차 안, 경성역과 같은 번화한 도시를 탐험하는 동안 줄곧 어딘지 모를 고독과 외로움을 맛보게 된다. 그런데 인용된 소설에서 보이는 구보의 모습은, 그가 경험하는 고독이, 단지 홀로 있다는 데에서 오는 외로운 감정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구보에게 고독은,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근원적인 불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 바쁘게 나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구보는 어디로 가야할지 행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방황을 거듭할 뿐이다. 그리고 그처럼 자신

이 가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지조차 알 수 없는 구보에게는, 행복을 찾는 일은커녕, 제대로 된 가족을 이루는 일조차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타성적 일상에 떠밀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자가 경험하는 허무야말로 구보가 느끼는 고독감의 본질인 셈이다.

제시문 (가)의 구보는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피하려 노력한다. 교외나 자연으로 나가 보거나, 반대로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틈으로 파고 드는 구보의 모습은,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구보의 바람과 달리, 그의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깊어질 뿐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재하는 세계에서,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공유나 위로를 찾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소설 속의 구보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고독을 무서워하고,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보와 달리, (나)의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기다리던 사랑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비가 내리는 시련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외로움에 슬퍼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 시에서는, 외로움이 단순한 결핍이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독과 외로움을 불행으로 바라보는 대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는 (가)의 구보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채점 기준 및 항목

채점 항목
❶ (가)를 읽고 구보가 느끼는 고독의 이유를 이해하는가? [분석력, 이해력]
❷ (가)의 구보가 경성역에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이 인간 관계의 단절로부터 비롯된 근대 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는가? [추론력, 판단력]
❸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해하는가? [분석력, 이해력]
❹ (가)의 구보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서술할 수 있는가? [논리력, 표현력, 창의력]
❺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❻ 어문 규정, 원고 분량을 지키고,적절한 분량으로 배분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 기준	배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A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❶, ❷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B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❸, ❹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 위의 요건 가운데 ❶, ❷, ❸, ❹ 중 두 개가 미흡하다.	D
• 위의 요건 가운데 셋 이상이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E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의 개인주의 때문이다. (가)에 따르면 구보는 고독을 피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 경성역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사람만 많았지, 사람들 간 교류는 부재했으며, 사적 이익만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불신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구보는 사람들이 붐비지만 홀로인 것 같은 고독을 느끼게 된다.

(가)의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구보는 외적 상황에 고독의 유무가 달려 있다 생각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며 고독을 피하려 애쓴다. 하지만 고독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다. 시적 화자는 외로움은 초월적, 자연적인 모든 존재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극복하려 애쓰지 말고 의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독을 회피하다가 고독이 어디에나 존재함을 알게 된 구보와 분명한 대비점을 갖는다. 따라서 구보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항 A-2[사회]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나**를 활용하여 **가**의 아빠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다**와 **라**를 근거로 하여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하나: 왜 통일이 돼야 하나요? 지금도 좋은데…… 제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몇천 조 원 이상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거래요.

아빠: 하나야. 우리나라가 매년 지출하는 군사비가 국내 총생산(GDP)의 2.5%라는 거 아니?

하나: 네? 그럼 40조 원도 넘겠네요.

아빠: 통일 비용이 엄청날 거라고들 하지? 하지만 그 돈은 군사비보다 훨씬 더 발전적으로 쓰이지 않겠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경제 재건이나 제도 통합에 쓰는 돈이니 말이야.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우리의 자산이란다. 분단 비용은 한 번 지출하면 돌아오지 않는 세금이고, 통일 비용은 지출한 만큼 다시 돌아오는 투자금이야.

하나: 그러네요. 사회 기반 시설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는 건 투자지 낭비가 아니죠.

아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도 약화되잖아. 이것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경제적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편익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이다. 편익이란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나 이익을 의미한다. 편익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비용은 선택한 대안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때의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질문: 남북 화해의 상징인 북한의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북측 근로자들을 보셨을 때 어땠나요? 이질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답변: 저는 북한 사람들은 정말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머리에 뿔은 없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질문: 서로 경계해서 웃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농담까지 주고받았다는 거죠?

답변: 처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그 말은 남녀 사이에 쓰는 말 아닙네까?"라면서 의아해하더군요.

『고등학교 한국사』

라

사회자: 이번 국회 의원 선거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선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예요.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 후보는 거의 당선되지 못하니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을: 저는 갑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갑이 말하는 지역주의도 결국 그 지역 다수 유권자의 뜻이 선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비례 대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해요.

『고등학교 정치와 법』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2 [사회]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통합사회,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통일, 평화, 평화 통일 노력
예상 소요 시간	50분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남북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만 인식하지 않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경제적 합리성을 비용과 편익을 통해 설명하고, 남북의 언어·교육·문화 차이와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문을 참고하여 명확히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의 아빠는 통일비용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수 가능한 투자로 이해한다. 그는 분단 상황에서 매년 지출되는 군사비와 같은 분단비용은 생산성이 없는 낭비지만, 통일비용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제도 통합에 쓰이는 발전적 지출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자산이 된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이란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진다. 아빠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사고에 기초한다. 그는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평화 정착과 외국 자본 유입, 새로운 시장 창출, 한반도 경제권 확대 등 더 큰 편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빠는 통일이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합리적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보이듯 남과 북은 오랜 분단으로 서로 다른 언어 사용과 교육 체계, 생활양

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상호 이해 부족과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라)의 지역주의 문제는 통일 이후 남북 간 정치적 대립으로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정 지역이나 세력 중심의 사고가 강화되면 대표성 논란이나 권력 분배 문제로 정치통합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경제적 이익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문화적 공감과 정치적 포용을 병행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채점 기준 및 항목

채점 항목
❶ 제시문 (가)의 아빠가 제시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❷ 제시문 (나)의 비용과 편익 개념을 활용하여 아빠의 관점을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❸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❹ 제시문 (라)의 지역주의 문제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정치적 갈등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❺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 기준	배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A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❶, ❷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B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❸, ❹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 위의 요건 가운데 ❶, ❷, ❸, ❹ 중 두 개가 미흡하다.	D
• 위의 요건 가운데 셋 이상이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E

예시 답안

제시문 (나)에 따르면 경제적 선택을 할 땐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의 아빠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 시 가져오는 편익이 크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찬성한다. (가)에 따르면, 우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분단 비용인 군사비가 매년 GDP의 2.5%나 소모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통일 비용은 소모적이지 않고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안정화가 되면 감소하게 된다. 즉, 통일이 되면 소모적인 분단 비용이 사라지고 투자적인 성격을 가진 통일 비용으로 발생할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이 되면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어 전쟁에 대한 불안감 완화, 외국 투자 유치, 국가 브랜드 강화 등 금전적, 비금전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다)와 (라)에 따르면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통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다)는 북한과 한국이 같은 말을 쓰지만 문화가 달라 완벽한 소통이 어렵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역사를 교육받아 경계심을 가진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완벽한 동화를 막기에,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한 민족이었던 역사를 교육받아야 한다. (라)는 한국도 지역주의로 확실한 정치적 통합이 일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 통일이 일어나면 남과 북으로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견해가 더욱 다양해지기에 통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과 정치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정치인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소통을 해야 한다.

문항 B-1[언어]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의 ㉠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회기와 **나**의 ㉡에서 나타난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50 ± 50자)

가

【앞의 줄거리】 어린 자식들이 있는 김인옥은 담배 공장에서 포장공으로 일하고 있다.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종합병원의 폐 외과 과장으로, 간호사 정금숙과 일하고 있다. 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한다.

인옥: 선생님…….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회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갉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차범석, 〈성난 기계〉, 『고등학교 국어』

나

"지금 부셔 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안 돼, 오늘 밤은 오늘 밤은이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그래도 안 돼……"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이어 들려오는
루핑 집* 안 단칸 벽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 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루핑 집: 물막이 천으로 지붕을 한 무허가 주택.

이시영, 〈공사장 끝에〉, 『고등학교 문학』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1 [언어]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인간애, 유대, 공감
예상 소요 시간	50분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가)의 ㉠‘기계’라는 상징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가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과 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의 회기가 ‘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상징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두 인물의 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문항 해설

(가)의 ‘기계’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는 존재이자 그로 인해 감정이 마비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적 감정을 잃은 존재를 상징한다. 또한 회기의 “댁의 손처럼”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의 회기는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라는 발언에서 드러나듯, 그는 수술의 실패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위험한 일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라는 발언을 통해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태도가 드러난다.

반면 (나)의 인부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철거를 미루며 연민을 드러낸다. 인부 역시 “소장이 알면”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조직에 속한 노동자로,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그래도 안 돼”라는 그의 말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연민을 지키려는 태도가 담겨있다.

이처럼 두 인물은 모두 고용된 노동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회기는 비인간적 사회 구조에 순응한 ‘기계적 존재’로, 인부는 그 속에서도 인간적 온기를 잃지 않은 존재로 대조된다.

채점 기준 및 항목

채점 항목
❶ 제시문 (가)에서 '기계'가 지닌 의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추론력, 창의력]
❷ 제시문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❸ 제시문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가 고용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❹ 제시문 (가)의 회기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지니며, 그로 인해 그의 환자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❺ 어문 규정, 원고 분량을 지키고, (가)와 (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적절한 분량으로 배분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 기준	배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A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❸ 또는 ❹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B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❶ 또는 ❷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 위의 요건 ❶, ❷, ❸, ❹, ❺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D
•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E

예시 답안

(가)는 직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행위하는 수단적 가치로 전락한 상황을 표현하며, ㉠은 그러한 모습을 기계로 표현해 자비 없는 사회상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가)의 회기는 폐외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인옥의 병 상태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며,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김인옥의 직업상 역할의 취지를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직업을 이익 좇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회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한다.

반면 (나)는 인부들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철거를 미룬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직업적 의무로만 국한하는 게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회기는 직업을 수단으로만 보는 한편, (나)의 인부는 직업을 기계적 활동이 아닌 도덕적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문항 B-2[사회]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나**를 근거로 **가**의 ㉠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의 이유를 추론하여 **라**의 ㉡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세계화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개인은 국가 권력의 통제에서 멀어져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발 도상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는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등을 갖춘 선진국이나 소수 기업에게 유리하여 국가 간, 개인 간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추세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나

각 국가는 기후, 지형 등 자연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차이가 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국은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현상이나 관계를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데,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진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기후 변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다. 네덜란드처럼 물에 뜨는 집을 지어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처럼 흙과 짚으로 지은 집이 홍수로 떠내려가 버리는 곳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주요 섬들의 65%가 바닷물에 잠식되어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집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면,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파리 협정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이다. 장기 목표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에 대한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감축 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발 도상국은 자국의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으며,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발 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2 [사회]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국제 분업과 무역, 비교 우위, 환경 문제
예상 소요 시간	50분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각기 어떤 과정을 거쳐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 분야에 특화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 부문에 특화하여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제환경을 바탕으로 국제 분업이 이루어져 무역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세계화가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비해 자본, 기술, 정보력 등에서 유리하여 국가 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대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에 비해 그렇지 못한 개발 도상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기후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변화 협약에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의미를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세계화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개발 도상국보다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을 갖춘 선진국에 유리하여 국가 간 빈부 격차가 확대된다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각국의 생산 조건에 따른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특화하여 국제 분업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각 국가의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화 및 생산으로 인해 무역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기후 변화 현상이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따른 대처 역량의 차이에 의해 국가와 국민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 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를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 종합적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감축 목표 유형에 차이를 두고,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음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의 세계화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진 것을 제시문 (나)의 각국의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에 따른 비교 우위와 생산 조건에 따른 특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기후 변화 현상에 대처하는 역량이 각국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제시문 (가)의 세계화에서 비롯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에서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선진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제시문 (다)의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피해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기후 변화 대처 역량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및 항목

채점 항목
❶ 제시문 (가)에서 세계화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나)의 특화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❷ 제시문 (다)의 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역량이 국가별로 다르며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 피해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것이 (가)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빈부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추론력]
❸ 제시문 (라)의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이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의 국가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후 변화 대처 역량 차이를 완화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❹ 글의 구성과 표현이 논리적이며,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 기준	배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A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❸, ❹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B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❶, ❷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 위의 요건 가운데 ❶, ❷, ❸, ❹ 중 두 개가 미흡하다.	D
• 위의 요건 가운데 셋 이상이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E

예시 답안

(나)는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있어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각국이 생산에서 특화된 상품을 교환할 때 생기는 극대화되는 이익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가)의 ㉠은 세계화가 일어나며 선진국은 자신들의 강점인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과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은 서로의 특화된 무역 상품을 통해 국제 분업의 관계를 맺게 되며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은 (나)의 국제 분업 효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나라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정도나 그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범죄의 심함을 보여주는 (나)는 (가)가 언급하는 세계화의 역효과를 통해 근거 추론이 가능하다. 세계화를 거치며 무역은 자신이 결핍하는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특화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 줄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활성화된다. 이러한 상황의 무역은 특정 국가들의 이익을 불러일으켜 국제 사회 안에서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세계화를 통해 격차가 커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차이를 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에서 언급하는 파리 협정의 체결과 ㉡의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원은 (다)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해결 방안으로 작동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문항, 해설, 예시답안(수리)

문항 A-1[수리]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다양한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고등학교 수학』

나

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합의 기호 $\sum$를 사용하여

$$a_1+a_2+a_3+\cdots+a_n=\sum_{k=1}^{n}a_k$$

와 같이 나타낸다.

『고등학교 수학 I』

논제 **임의의 자연수 m이 소수 p_1, p_2, $\cdots$, p_n의 곱 $p_1\times p_2\times\cdots\times p_n$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f(m)=n$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12=2\times2\times3$이므로 $f(12)=3$이다. 단, $f(1)=0$이다.**

(1) 210 으로 나누어지고 $f(m)=6$인 10000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시오. [20점]

(2)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f(a)=5$이고 $f(b)=3$일 때, $\sum_{n=1}^{10}f(nab^n)$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1 [수리]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경우의 수, 수열
예상 소요 시간	35분	

출제 의도

소수(prime number)는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로써 암호체계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소수의 범위와 곱셈 등의 기본 연산과 활용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해설

본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첫번째 문제는 소인수분해를 통해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소인수들을 셀 수 있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한 소인수분해를 통해 이뤄진 곱셈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결과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적용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❶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소인수분해 결과를 제시	5
	❷ 파악해야 할 두 개의 소수를 추가해 값의 범위를 설정	10
	❸ 미지의 두 개 소수를 범위 내의 소수를 이용해 가능한 모든 쌍을 구함	5
1-(2)	❶ 문제에서 정의한 함수를 이용해 소인수의 개수의 합에 대한 함수의 합으로 표현	10
	❷ 앞에서 구한 관계식을 이용해 합을 계산	5
	❸ 각 단계의 계산 결과를 모두 이용해 최종 결과를 계산	10

예시 답안 (1) 210=2×3×5×7이므로 m이 $f(m)$=6이고 210으로 나누어지면 적당한 소수 p, q에 대하여 $m=2\times3\times5\times7\times p\times q$로 인수분해된다.

$m \le 10000$이므로 다음과 같은 범위를 구할 수 있다.

$$210pq \le 10000 \Rightarrow pq \le \frac{10000}{210} = 47.\times\times\cdots$$

그러므로 곱이 47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쌍은 (2, 2), (2, 3), (2, 5), (2, 7), (2, 11), (2, 13), (2, 17), (2, 19), (2, 23), (3, 3), (3, 5), (3, 7), (3, 11), (3, 13), (5, 5), (5, 7) 이다.

따라서 210으로 나누어지고 $f(m)$=6인 10000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는 총 16개다.

(2) 임의의 자연수 k, m에 대하여 km의 소인수의 개수는 k의 소인수의 개수와 m의 소인수의 개수의 합과 같으므로

$$\sum_{n=1}^{10} f(nab^n) = \sum_{n=1}^{10} \{f(n)+f(a)+nf(b)\} = \sum_{n=1}^{10} f(n) + \sum_{n=1}^{10} f(a) + \sum_{n=1}^{10} nf(b)$$ 이다.

$f(1)=0$이고 $f(2)=f(3)=f(5)=f(7)=1$, $f(4)=f(6)=f(9)=f(10)=2$, $f(8)=3$

이므로 $\sum_{n=1}^{10} f(n) = 15$이다.

또한 $f(a)$=5이고 $f(b)$=3이므로

$$\sum_{n=1}^{10} f(a) = 10\times5 = 50$$이고 $$\sum_{n=1}^{10} nf(b) = \frac{10\times11}{2}\times3 = 165$$이다.

그러므로 $\sum_{n=1}^{10} f(nab^n) = 230$이다.

문항 A-2[수리]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점 (x_1, y_1)과 직선 $ax+by+c=0$사이의 거리 d는 다음과 같다.

$$d=\frac{|ax_1+by_1+c|}{\sqrt{a^2+b^2}}$$

『고등학교 수학』

나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x=a$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f(x)$위의 점 $\mathrm{P}(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a$에서의 미분계수 $f'(a)$이다.

『고등학교 수학 II』

논제 $f(x)$는 삼차함수이다. 곡선 $y=f(x)$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이 $m>-1$일 때 두 개, $m=-1$일 때 한 개 존재하고, $m<-1$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2$이다. $m>-1$일 때 m을 기울기로 갖는 $f(x)$의 두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g(m)$이라고 하며, $g(0)=4\pi$이다.

(1) 함수 $f(x)$를 구하시오. [25점]

(2) $\lim_{m\to\infty}[g(m)-h(m)]=0$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h(m)$를 구하시오. [30점]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2 [수리]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계수,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접선의 방정식, 다항함수
예상 소요 시간	65분	

출제 의도

함수는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특정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인데, 다항식(polynomials)은 이들 함수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본 문제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을 미분과 연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삼차함수는 이차함수와 달리 변화패턴의 대칭점인 변곡점을 갖는 가장 간단한 함수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현상 내에 포함된 다양한 변화패턴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수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풀어낼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함수를 다루고 있는 대학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해설

본 문항을 구성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임의의 삼차함수를 정의한 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주어진 함수에서 특정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과 접하는 원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삼차함수의 특징과 미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앞에서 구한 삼차함수를 이용하여 접점의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 후 제시한 극한의 조건식을 이용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삼차함수의 일반식에 대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적용한 결과 제시	15
	•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에서의 모든 방정식을 구함	5
	• 문제에서 제시한 접하고 있는 원의 넓이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삼차함수의 식을 제시	5
2-(2)	• 이전 단계에서 구한 함수로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함	5
	•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함	10
	•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원의 면적 계산	5
	• 각각의 함수를 구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한값 계산	10

예시 답안 (1) $f(x)$가 삼차함수이므로 $f(x)=ax^3+bx^2+cx+d$라 둘 수 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2$이므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f(x)+f(-x)=2bx^2+2d=2 \Rightarrow b=0,\ d=1$$

가정으로부터 $f'(x)=3ax^2+c$은 최솟값이 -1이므로 $c=-1$이다.

따라서 $f(x)=ax^3-x+1$이다.

이제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0$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f'(x)=3ax^2-1=0 \Rightarrow x=\pm\frac{1}{\sqrt{3a}} \Rightarrow$$

$$f\left(\pm\frac{1}{\sqrt{3a}}\right)=a\left(\pm\frac{1}{3a\sqrt{3a}}\right)-\left(\pm\frac{1}{\sqrt{3a}}\right)+1=\mp\frac{2}{3\sqrt{3a}}+1$$

그러므로 기울기가 $m=0$인 두 접선의 방정식은 $y=\pm\frac{2}{3\sqrt{3a}}+1$이다.

두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frac{2}{3\sqrt{3a}}$이므로 원의 넓이는

$$g(0)=4\pi=\frac{4}{27a}\pi \Rightarrow a=\frac{1}{27}$$

이다. 따라서 $f(x)=\frac{1}{27}x^3-x+1$이다.

(2) $f'(x)=\frac{1}{9}x^2-1$이므로 점 $(\alpha, f(\alph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left(\frac{1}{9}\alpha^2-1\right)x-\frac{2}{27}\alpha^3+1$

이다. $\frac{1}{9}\alpha^2-1=m$라 하면

$$\frac{\alpha}{3}=\pm\sqrt{m+1}$$

이므로 기울기가 m인 두 접선의 방정식은 $y=mx\pm2(m+1)^{3/2}+1$이다.

가에 근거하여 접선 사이의 거리는 $\frac{4(m+1)^{3/2}}{\sqrt{m^2+1}}$이므로 두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frac{2(m+1)^{3/2}}{\sqrt{m^2+1}}$이고 원의 넓이는 $\frac{4\pi(m+1)^3}{m^2+1}$이다.

결국,

$$g(m)=\frac{4\pi(m+1)^3}{m^2+1}=4\pi(m+3)+\frac{8\pi(m-1)}{m^2+1}$$

이므로, $h(m)=4\pi(m+3)$라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m)-h(m)=\frac{8\pi(m-1)}{m^2+1} \Rightarrow \lim_{m\to\infty}[g(m)-h(m)]=0$$

문항 B-1[수리]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차례로 늘어놓은 수의 열을 수열이라 하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한다. 『고등학교 수학 I』
나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로그라 하고, 상용로그 $\log_{10}N$은 보통 밑 10을 생략하여 $\log N$과 같이 나타낸다. 『고등학교 수학 I』

논제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a\,(a>0)$명의 집단이 있다. A와 B의 치료법 중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여 이 집단의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하려 한다. 치료법 A를 처음 적용할 때 남아 있는 환자의 $\frac{2}{3}$가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치료법 A를 두 번째부터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의 $\frac{1}{3}$이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 치료법 B를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의 $\frac{1}{2}$이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 치료법의 적용 비용은 환자 수와 관계없이 회당 A는 10만 원이며, B는 15만 원이다. 단, $\log 2=0.30$, $\log 3=0.48$로 계산한다.**

(1) 치료법을 총 n번 적용했으며 이 중 A를 k번 적용했다. 치료법을 마지막으로 적용한 다음 날의 환자 수를 구하시오. [20점]

(2) 치료법을 모두 적용 후 남은 환자 수가 처음 환자 수의 $\frac{1}{27}$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할 때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시오. [30점]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1[수리]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 등비수열, 상용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예상 소요 시간	40분	

출제 의도

시간 변화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수열은 단순한 값의 나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을 표현하고 다양한 연산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본 문항은 확률 변화로 파악하기보다 일련의 변화 발생 비율의 변화를 수열로 표현해 다룸으로써 보다 쉽게 풀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그함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본 문항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수열과 로그함수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 해설

문항의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율이 다르지만, 최초 가정한 전체 인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각 치료법의 적용횟수만 이용해 남은 환자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비율의 한계를 구하는 한편, 로그함수를 적용해 문제를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로부터 각각의 경우에 대해 비용을 구해 그 결과를 비교하면 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❶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비율 정의	10
	❷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특정 치료법을 선택해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비율을 계산	5
	❸ 위의 결과들을 이용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계산	5
1-(2)	❶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용해 최소 비용 계산	10
	❹ 앞의 결과를 이용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범위 계산	5
	❺ 특정 치료법을 선택해 각 발생 횟수에 따라 비용 계산	10
	❻ 앞의 결과들을 이용해 문제에서 요구한 해답 제시	5

예시 답안 (1) 치료법을 n번 적용하는 동안 A를 $k(0 \le k \le n)$번 적용하였다면 B는 $n-k$번 적용되었다. A를 처음 적용 후 남아 있는 환자 수는 전일 대비 $\frac{1}{3}$이고, 2일째 이후는 전일 대비 남아 있는 환자 수는 $\frac{2}{3}$이다. 같은 방법으로 B를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 수는 전일 대비 $\frac{1}{2}$이다.

n번 적용 후 남아 있는 환자 수를 a_n이라 하자. k=0이면 B만 적용하였으므로

가에 의하여 $a_n = a\left(\frac{1}{2}\right)^n$이다.

결국 $1 \le k \le n$이면 $a_n = \frac{a}{3} \cdot \left(\frac{2}{3}\right)^{k-1}\left(\frac{1}{2}\right)^{n-k}$이다.

(2)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_n \le a \times 3^{-3}$일 때 최소 비용을 구하여야 한다.

$k=0$인 경우, $\left(\frac{1}{2}\right)^n \le \left(\frac{1}{3}\right)^3$이어야 하고 따라서 나에 의하여 $-n\log 2 \le -3\log 3$.

즉, $n \ge \frac{3\log 3}{\log 2} = \frac{3\times 0.48}{0.3} = 4.8$ 이어야 한다.

n은 정수이어야 하고 $n=5$일 때, 최소 비용 $15\times 5 = 75$(만원)이 발생한다.

$k \ge 1$인 경우, $2^{2k-1-n}3^{-k} \le 3^{-3}$즉, $2^{2k-1-n} \le 3^{k-3}$이어야 한다.

따라서 $2k-1-n \le (k-3)\frac{\log 3}{\log 2}$이고, 나에 의하여 $n-2k+1 \ge 1.6(-k+3)$.

즉, $n \ge 0.4k+3.8$이다.

$k=1$인 경우, $n \ge 4.2$즉, $n \ge 5$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times 4+10 = 70$만원이다.

$k=2$인 경우, $n \ge 4.6$즉, $n \ge 5$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times 3+10\times 2 = 65$만원이다.

$k=3$인 경우, $n \ge 5$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times 2+10\times 3 = 60$만원이다.

$k=4$인 경우, $n \ge 5.4$ 즉, $n \ge 6$ 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times 2+10\times 4 = 70$만원이다.

$k=5$인 경우, $n \ge 5.8$ 즉, $n \ge 6$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times 1+10\times 5 = 65$만원이다.

$k=6$인 경우, $n \ge 6.2$ 즉, $n \ge 7$ 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times 1+10\times 6 = 75$만원이다.

$k \ge 7$인 경우, $n \ge k \ge 7$이어야 하므로 최소 비용은 $10k \ge 7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구하는 최소 비용은 A를 3번, B를 2번 적용할 때, $15\times 2+10\times 3 = 60$만원이다.

문항 B-2[수리]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가**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함수 $f(x)$가 닫힌구간 $[a,b]$ 에서 연속이고 $f(x) \geq 0$일 때,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다음과 같다.

$$S=\int_a^b f(x)dx$$

『고등학교 수학 II』

논제 **곡선 $y=x^2$과 직선 $y=k\left(k>\frac{2}{3}\right)$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경계선 위에 점 A_1부터 A_9까지 9개의 점이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놓여있다. 점 $P\left(0,\frac{2}{3}\right)$와 A_1부터 A_9까지 9개의 점을 각각 잇는 선분들로 이 영역의 넓이를 9등분하고자 한다. A_1은 원점이고 A_2의 좌표는 $(1,1)$이다.**

(1) k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2) 주어진 경계선 위의 9개의 점 중에서 직선 $y=k$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30점]

해설

일반 정보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2 [수리]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60분	

출제 의도

미적분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뿐 아니라 경제학과 같이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조차 널리 사용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본 문제는 적분의 역할과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하였다.

문항 해설

문항의 첫 번째 문제는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적분과 함께 특정 형태의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들을 이용해 계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을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대칭성 등을 포함한 각 도형의 여러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각형 등 도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평면공간에서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❶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의 면적 계산	5
	❷ 앞선 계산 결과에 대한 문제 요구 사항 반영	5
	❸ 적분을 이용해 영역의 계산	5
	❹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 결과 산출	5
2-(2)	❶ 대칭성에 관한 언급	5
	❷ 삼각형 넓이에 대한 계산 결과를 이용해 좌표를 산출	10
	❸ 앞에서 구한 좌표를 이용해 다른 점의 좌표를 식별	5
	❹ 특정 점의 좌표를 이용해 문제에서 지정한 평행선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10

예시 답안 (1) PA_1A_2도형 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rac{1}{2}\left(\frac{2}{3}+1\right)-\int_0^1 x^2dx=\frac{5}{6}-\frac{1}{3}=\frac{1}{2}$$

$y=x^2$과 $y=k$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도형 PA_1A_2의 넓이의 9배이므로 $\frac{1}{2}\times 9=\frac{9}{2}$이다. 한편 $y=x^2$와 $y=k$의 교점은 $(\pm\sqrt{k},k)$이므로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2k\sqrt{k}-\int_{-\sqrt{k}}^{\sqrt{k}} x^2dx=2k\sqrt{k}-\frac{2}{3}k\sqrt{k}=\frac{4}{3}k\sqrt{k}$$ 이다.

그러므로 $\frac{4}{3}k\sqrt{k}=\frac{9}{2} \Rightarrow k^{3/2}=\frac{27}{8} \Rightarrow k=\frac{9}{4}$이다.

(2) 직선 $y=k=\frac{9}{4}$ 위에 주어진 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점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대칭성에 의하여 A_5와 A_6가 y축에 가장 가까운 점이고 각각의 좌표를 $\left(a,\frac{9}{4}\right)$, $\left(-a,\frac{9}{4}\right)$라 둘 수 있다.

삼각형 PA_5A_6의 넓이는 $\frac{1}{2}$이고 점 P에서 직선 $y=\frac{9}{4}$까지의 거리는 $\frac{9}{4}-\frac{2}{3}=\frac{19}{12}$이므로 삼각형의 높이는 $\frac{19}{12}$이다. 그러므로 밑변 $\overline{A_5A_6}$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a=\frac{12}{19} \Rightarrow a=\frac{6}{19}$$

그러므로 A_5의 좌표는 $\left(\frac{6}{19},\frac{9}{4}\right)$, A_6의 좌표는 $\left(-\frac{6}{19},\frac{9}{4}\right)$이다.

곡선 $y=x^2$과 $y=\frac{9}{4}$의 교점은 $\left(\pm\frac{3}{2},\frac{9}{4}\right)$이고 위 두 점의 x좌표는 $-\frac{3}{2}\le x\le\frac{3}{2}$ 이므로 경계면 위에 있는 점이다. A_4와 A_7이 직선 $y=\frac{9}{4}$위의 점이라고 하면 삼각형 PA_4A_5와 PA_6A_7의 밑변의 길이도 $\frac{12}{19}$이므로 A_4의 좌표는 $\left(\frac{18}{19},\frac{9}{4}\right)$, A_7의 좌표는 $\left(-\frac{18}{19},\frac{9}{4}\right)$이어야 하고 두 점의 x좌표는 $-\frac{3}{2}\le x\le\frac{3}{2}$를 만족한다.

A_3와 A_8이 직선 $y=\frac{9}{4}$위의 점이라고 하면 삼각형 PA_3A_4와 PA_7A_8의 밑변의 길이도 $\frac{12}{19}$이므로 A_3의 좌표는 $\left(\frac{30}{19},\frac{9}{4}\right)$, A_8의 좌표는 $\left(-\frac{30}{19},\frac{9}{4}\right)$이어야 하고 두 점의 x좌표는 $-\frac{3}{2}\le x\le\frac{3}{2}$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A_3와 A_8이 직선 $y=\frac{9}{4}$위의 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선 $y=\frac{9}{4}$위의 모든 점의 좌표는 $\left(\pm\frac{6}{19},\frac{9}{4}\right)$, $\left(\pm\frac{18}{19},\frac{9}{4}\right)$이다.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AI(Gemini)로 제작 되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경기대학교



지역과 산업, 교육이 만나 미래를 여는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예술의 중심 서울캠퍼스 & 미래지향 융합교육의 수원캠퍼스
캠퍼스간 이동은 자유롭게, 경험은 두 배로
지속가능한 미래 ESG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 사학

홈페이지 : https://enter.kyonggi.ac.kr
상담문의 : 031-249-9997~9

1947 KGU KYONGG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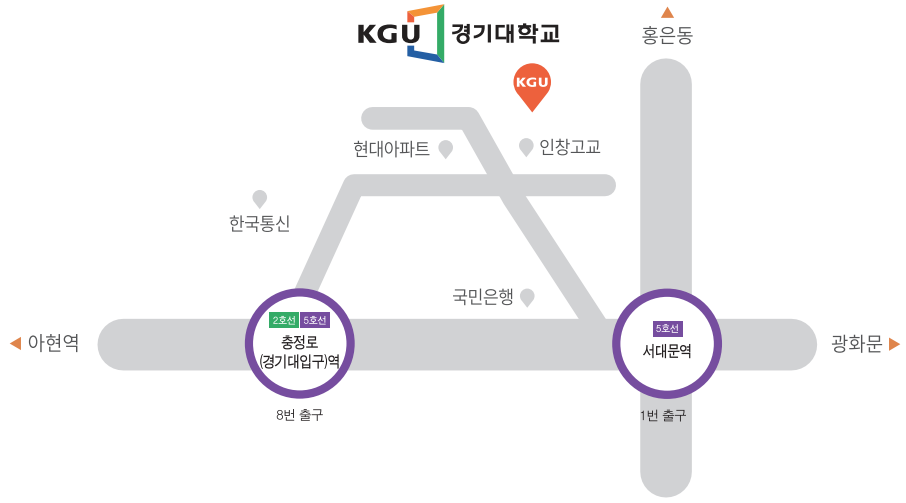
■ 수원캠퍼스 찾아오는 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서울캠퍼스 찾아오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광교(경기대)역에서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으로 약 36여분 소요



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KGU 경기대학교
1947

경기대학교 입학안내 http://enter.kyonggi.ac.kr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입학문의 031-249-9997~9999
FAX 031-249-8757